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12 2016

VOL. 246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 Gear 360

Capture  
Everything  
You See



Capture  
Everything  
You Can't



**A camera to capture whole stories**

\*Gear 360 and Galaxy smartphone are sold separately.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 출발   | 도착   | 편명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요일 | 기종  |
|------|------|-------|------|--------------------|----|-----|
| 자카르타 | 서울   | KE628 | 2200 | 0700 <sup>+1</sup> | 매일 | 77W |
| 서울   | 자카르타 | KE627 | 1535 | 2040               | 매일 | 77W |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aspard et Lisa | LOTTE  
SHOPPING AVENUE

presents:

# Lovely Christmas ON ICE

25 NOV '16 - 8 JAN '17  
at Main Atrium - GF



©2016 Hachette Livre



가스파드, 리사와 즐거운 아이스 스케이트를 함께 타세요!

L.Point 회원 멤버스  
특별 할인



월 ~ 목 IDR 45,000  
금 ~ 일 IDR 65,000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IDR 65,000 적용)



## 신규 오픈

**NOODLE KING**  
KOREAN NOODLE

자카르타 최고의 중화요리  
3층

**zap**  
www.zap.co.id

뷰티 트리트먼트 클리닉  
4층

**iEye**

패션 아이웨어 샵  
1층

**manZONE** Concept

남성 패션 멀티샵  
2층

## 사은 행사



크리스마스 상품권\*  
**더블밸류**

\*12월 10일 ~ 11일, 오후 8시부터

+



**FREE\***  
Gaspard et Lisa  
PLUSH TOY

\*200만 / 500만 / 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Terms & Conditions Apply



10일간의

**BLACK SHOPPING DAYS**

12/3 - 12/12

12월 10일~11일 단 이틀 12시 까지 연장 영업합니다!

- 최대 70% 할인 •
- 10% 추가 할인 + 10% 상품권 증정 •
- 크리스마스 스페셜 상품권 증정 •
- 유명 아티스트 스페셜 공연 •





#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 국제기업들이 인정하는 Quality & Safety System을 구축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

PT. Sepuluh Sumber Anugerah는 25년전 인도네시아에 자리잡은 한인 종합건설 회사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2, Grade 7 건설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소, 인프라 등 건설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Kawasan Modern Industri - Cikande에 규모 5헥타르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하도급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 건설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25년 전통 한인 종합건설회사 PT. SSA와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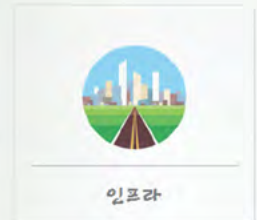
플랜트



토목 건축



발전소



인프라



고객 행복  
추구




신뢰 획득



가치 창출



경쟁력  
전문가

 [www.pt-ssa.co.id](http://www.pt-ssa.co.id)

HEAD OFFICE:  
Gedung EQUITY Tower 22A, SCBD Jakarta  
021-5140-2833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awasan Modern Industri Kav. 6  
0254-4029-47~49



가구는 가족이다

# 조지안 퍼니처

연말세일  
40%~60%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귀족할 때 꼭 자랑만해  
가는 가구!



## Georgian Furniture

쇼룸: Jl. Taman Cilandak IV-47  
(021) 750-6109, 766-0364  
Open: 월~토 (오전 8 ~ 오후 5시)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 <http://www.innekorean.or.id> )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비겁한 결속력

불법관행

상대적 원칙주의

누가해도 이긴다는 싸움도

역풍이 두려워 나설 사람도 없고,

돌파력을 가진 힘을 발휘할 사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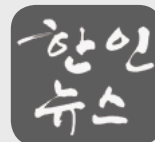
힘은 집중되어도 안되는 것이고,

분산되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를 보고 미소지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잘 했다 칭찬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10 편집위원 칼럼 / 편집위원 황윤홍
- 12 이선진전대사의 대사일기  
제6화 경제에 매달리다
- 17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
- 18 조세사면제도 <임창혁>
- 21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
- 22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을 다녀와서……
- 24 집중! 이 사람 / 김용재, 한경순 부부
- 26 에피소드 / 잊을 수 없는 첫 커피 <배동선>
- 29 까리다답의 어린 아이 <장소명>
- 30 여기는 인도네시아라구! <최우호>
- 32 흘러가는 정보, 모이는 정보 / 박상훈 칼럼
- 34 JIKS 소식
- 37 JIS 소식
- 38 김장문화 <정혜경>
- 40 월간뉴스 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44 난중일기 <박병모>

- 46 지상갤러리 <권미선>  
작가 이원기
- 48 행복에세이 <김은숙>
- 50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54 인도네시아 민법 <이승민>
- 57 피르본과 꾸닝안에서 <홍재환>
- 60 UMP 2017
- 63 어? 이런 곳도 있었네! <이승진>
- 69 생활정보



눈오는 덕수궁 돌담길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 @dqddoodle ]



##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찾아서...

글: 편집위원 황윤홍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관련 사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도 통계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70년대 후반 들어 정확한 경제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은 대학에 통계학과가 설치 되어 있고 통계청 자료도 신뢰성을 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목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10여년 통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과학적 분석기법을 도입하고 통계청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인니의 통계사업을 관장하는 공적기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중앙통계청 ( BPS : Badan Pusat Statistik ) 이 설치되어 있다. BPS는 주 (Province)에서 시 (Kota) 단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각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통계 자료의 디지털화로 간행 출판물들은 무로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 자료는 유료로도 판매되고 있다.

BPS (www.bps.go.id) 통계 자료는 인니어와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경제, 사회, 문화, 기후, 고용, 환경, 건설, 에너지, 지역별수명, 교통, 보건, 위생 은 물론 빈곤율과 공무원 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수치가 제공되고 있다. (너무 광범위하여 제공 되는 자료들을 모두 확인 할수 가 없었음)

특히 각 지역 /도시별로 세분화되어 그 지역의 각종 수치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일부 자료들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달라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 파악에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슬람 성향이 강한 아체 주의 통계 데이터에는 이슬람 관련 수치들이 풍부하여 연간 메카 순례자 수는 물론 이슬람 학교와 교사, 생도 수, 이슬람교 윤리에 입각한 회사(기부)금액까지도 수록 되어 있다고 한다.



또 북수마트라와 중부 슬라웨시주는 주택의 마루와 외벽, 지붕에 사용되는 재료 그리고 화장실의 종류, 식수의 공급원 별 세대 수까지 생활 수준에 관한 세밀한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가족계획에 관한 통계 자료로 가족계획 참여자 수, 관련시설, 피임 방법별 실천자 수까지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통계 수치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업에 접목시키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번쯤은 위에 소개된 인니 통계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자료와 수치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사 및 주위 지인들로부터 인니에 관한 자료 요청을 수없이 받고 있을 동포 기업인들이 현지 상황 파악과 기본적인 각종 다양한 수치를 익힐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보기 편하게 작성된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한다.

CIA home page (<http://cia.gov/index.html>) – Resources – world factbook – Indonesia

### 통계청 발간 자료 리스트 (무료 다운로드)

| No. | Title  | Period   | Language   | Released Schedule | Status                |
|-----|--|----------|------------|-------------------|-----------------------|
| 1   | Construction Cost Indices Province and Regency/ Municipality 2016                          | Annually | Indonesian | Nov 1, 2016       | Released Oct 3, 2016  |
| 2   | Statistics of Indonesian Youth 2015  | Annually | Indonesian | Nov 7, 2016       | Released              |
| 3   | Statistics of Aging Population 2015  | Annually | Indonesian | Nov 7, 2016       | Released              |
| 4   | Regional Overview Based on 2011-2015 GDRP, Book 1 Sumatera Island                          | Annually | Indonesian | Nov 11, 2016      | Released              |
| 5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of Regencies/ Municipalities in Indonesia 2011-2015        | Annually | Indonesian | Nov 11, 2016      | Released              |
| 6   | Regional Overview Based on 2011-2015 GDRP, Book 2 Jawa and Bali Islands                    | Annually | Indonesian | Nov 11, 2016      | Released              |
| 7   | Regional Overview Based on 2011-2015 GDRP, Book 3 Kalimantan Island                        | Annually | Indonesian | Nov 11, 2016      | Released              |
| 8   | Regional Overview Based on 2011-2015 GDRP, Book 5 Nusa Tenggara, Maluku, and Papua Islands | Annually | Indonesian | Nov 11, 2016      | Released              |
| 9   | Regional Overview Based on 2011-2015 GDRP, Book 4 Sulawesi Island                          | Annually | Indonesian | Nov 11, 2016      | Released              |
| 10  | Clean Water, Electricity, and Gas Distribution Company Directory 2016                      | Annually | Indonesian | Nov 18, 2016      | Released Nov 22, 2016 |

BPS Indonesia Office  
 Statistics Indonesia  
 Jl. Dr. Sutomo No. 6-8 Jakarta 10710 (62-21) 3841195, 3842508



대사의 일기 제16화

“경쟁사에 대타돌리다”

**Korean firms to invest up to \$8.6b in RI projects**

**Handayani, Ireni**  
The Jakarta Post  
(July 26, 2007), p. 13

The other major projects include the development of a coal-exporting terminal worth \$90 million in Tanjung Api in South Sumatra by a Korean consortium led by Inseong Company Ltd and local firm PT Petra Indonesia.

LQ subsidiary L1 will form a joint venture with local firm Pertamina to build a natural gas liquefaction plant (JGTL) worth about \$7 million in North Sumatra.

“The investment plans have been well thought out and I’m sure there will be no problems with their implementation. We will facilitate those projects so that they are processed as expeditiously.” Trade Minister Iain Esha Pringgatan said.

The trade minister added that there were no plans to date to provide special incentives to speed up their implementation.

Meanwhile, in the upstream oil sector, Korean oil-refined firm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 and energy firm SK Corporation will invest about 150 million on a number of oil and gas exploration projects.

They will be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Indonesia’s state oil and gas company PT Pertamina.

The trade minister said that the deals were no plans to date to provide special incentives to speed up their implementation.

Meanwhile, in the upstream oil sector, Korean oil-refined firm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 and energy firm SK Corporation will invest about 150 million on a number of oil and gas exploration projects.

They will be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Indonesia’s state oil and gas company PT Pertamina.

The trade minister said that the deals were no plans to date to provide special incentives to speed up their implementation.

Meanwhile, in the upstream oil sector, Korean oil-refined firm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 and energy firm SK Corporation will invest about 150 million on a number of oil and gas exploration projects.

They will be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Indonesia’s state oil and gas company PT Pertamina.



2007년 SBY 의 한국방문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두 가지 개인적(?) 과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였다. 북한/인도네시아 특수 관계를 남북한 관계에 활용하겠다는 첫째 과제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두 번째 과제이다. 그러나 2006년도 SBY 대통령 취임 당시 방문이 연기되면서 첫째 과제를 접었다 (제3화).

그 후 2006.12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 인니 경제 증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조림사업, POSCO 제철소 사업, 방위 산업 (잠수함) 사업, 원자력 협력 사업 등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정부 및 기업 포함)의 시각은 냉랭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상황은 불확실하였다.

1. 대사의 자서감은 “근거라도 갖추게 할 수 있다”

내가 2005.5 인도네시아 부임할 즈음은, 한국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본격 재개할 시점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FDI)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우리 언론은 아체 쓰나미, 테러, 부정부패, 사회불안, 노사분규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여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 심각한 주재국 정치, 경제 상황

실제, 당시의 인도네시아 정국 불안과 경제 상황은 심각하였다. 2014.10 SBY가 취임할 당시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1 천만 명의 실업자와 국민의 16%가 빈곤층이었다. 더욱이 그해 12월 아체지역에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하여 사망자 14만 명,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미증유의 국난에 직면하였다.

SBY는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정국 불안정, 노동 쟁의 등 사회 혼란, 국제테러, 부정부패, 모슬렘 사회의 반서구 정서 등으로 인하여 일본 및 서구 경제계가 인도네시아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었다.

SBY는 신정부 발족 초기 2005.1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설명회(Infra-summit)를 개최하고 호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그 후 Infra-summit를 몇 차례 추가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투자 실적은 오르지 않았다.

SBY는 정부 발족 초기에 일본으로부터 투자 및 인프라 건설지원을 기대하였다. 대통령 당선 후 가장 먼저 주 인도네시아 일본대사를 찾았고, 취임 후 미국,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였다. 일본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없어서 실망하였다. 이에 SBY는 방향을 바꾸어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교류를 모색하였다. 중국은 그 당시 대아세안 접근정책을 가속화하던 시점인 만큼 지도층의 교환 방문과 경제교류를 도구로 삼아 인도네시아의 접근에 적극 응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특히 군부의 경계감은 역사적 산물이다. 1965년 친중국계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그 때 많은 군부 인사들을 죽였다. 이 쿠데타를 제압하여 집권한 수하르트 대통령이 집권 32년 동안 반 중국 교육을 철저히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SBY가 필요에 의하여 대중국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적극적인 중국의 반응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접근, 경제 교류의 확대는 SBY 정부에게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사로서 부임한 것은 분명 나의 행운이었다.

## 2007년 경제에 대한 노력

나는 2007년도 업무 계획의 초점을 경제에 두었다. 실제 2006.12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 합의한 경제 분야의 후속조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사관은 2007년도 두 가지 주요 일정을 주목하였다. 하나는, 노 대통령이 자카르타 방문 중 이 나라 정부와 우리 교민들에게 약속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이다. 다른 하나는, SBY대통령의 한국 방문이다.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되었지만 2007년도에는 이루어지고, 이때 대규모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계 인사들의 교류를 통하여, 첫째 경제계 교류를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예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에너지 포럼과 산림 포럼을 확대하고, 이제까지 G2G(정부 대 정부) 차원의 매카니즘을 B2B(기업 대 기업) 차원으로 전환한다. 둘째, 이러한 경제계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대규모 package 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하는 장(場)으로 삼는다. 셋째, 양국 경제계의 교류를 홍보하여 이미지를 확산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4.10 SBY 집권이후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잠재력을 한국 사회와 경제계에 인식시키는 작업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천 가능할까, 대사 능력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사로서 부임하여 1년 반 동안 주재국 인사들과의 인맥과 신뢰를 쌓은 경험은 나로 하여금 강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당시 우리 정부의 누구도 인도네시아에 관하여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경제부처를 포함하여 대사의 말이 최고의 권위였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에

관한 나는 장관이자 대통령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부 본부의 인도네시아 담당 정책 라인 또한 나의 강한 후원 세력이었다. 서정인 담당 과장(현재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 이혁국장(현재 주 베트남 대사) 및 송민순 장관(반기문 장관 후임)은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를 지지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도 나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당시 SBY를 제외하고 부통령, 외교부 장관을 포함 어느 부처의 장관도 한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해 본적이 없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 대학과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강연 요청도 크게 늘었다.

양국의 든든한 후원세력 하에서 나는 대사로서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대사의 자신감은 “코리도 춤추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참고로, 내가 부임할 즈음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은 1,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중 80% 이상이 노동집약 산업의 중소기업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주재원 대부분이 본사 과장급 이하였고 부장급도 없었다. 과거 임원급 주재원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이 철수하였다. 과장급 주재원은 현지 시장 정보 수집 기능 수준의 일을 할뿐 새로운 투자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LG, 삼성전자만 대규모 현지 투자로 임원급이 상주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경제 교류 확대문제는 한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의존하기 어렵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대사관 직원들은 수시로 상사 주재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대통령의 방문이나 대규모 경제 사절단의 방문 계획을 브리핑하여 한국 본사들이 준비케 하였다. 우리 교민 기업들로부터도 현지 기업 동향과 경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코린도 그룹 승은호 회장과는 수시로 만나 자문을 구하였다.



이 선 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지난 4월 30일 - 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을 단장으로 70 여개 업체 155명의 기업인, 10 개 부처 40 명 공무원 등 195명의 대규모 민간 합동 경제사절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열대의 광대한 국토 및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이 3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1,20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활동 중이다. 미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의 투자 진출이 많은 국가이며, 우리의 9번째 무역 상대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만 명 규모의 우리 중소기업은 국내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상 정안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외국인 커뮤니티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 및 우수한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 자본, 개발경험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프라, 산림, IT, 방산 등 분야 별로 나누어 주요 사업 실행의 및 개별 기업 면담 일정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200여명의 민간 대표단이 참가하여 정부 간(G-G), 민간기업간(B-B) 프로젝트 위주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우리 기업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하여 필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적당한 투자처가 없어 비정상적 분리로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금을 기업의 해외 진출로 활용을 찾아주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

한인뉴스 (VOL.132) 2007년 6월호에  
실린 이선진대사의 특별기고문

## 2. 한국 경제사절단의 JKT 방문

2007.2.9. 산업자원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약속한 대로 대 인도네시아 특별반(task force, T/F)을 산자부에 설치키로 하였으며 2-3월 중 실무대표단이, 3월 말 산자부 장관을 수석으로 20 여개의 재계 대표들이 인니를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 사이 grand package(큰 프로젝트를 서로 주고받는 것) 협상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대사관이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보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현실에 비추어 grand package라는 말 자체가 탁상공론 식 발상이었고,



G2G (정부 대 정부)보다 B2B(기업 대 기업) 중심의 경제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배치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크게 별리자”는 발상이 마음에 들었다.

산자부 장관 주재로 약 90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회의가 처음 열려 인도네시아 방문 건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4.29-5.2 산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 대표로 경제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준비 실무단을 3.19 파견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방문 날짜가 결정되었으며, 혹시 산자부 장관이 빠질까하는 우려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우리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이에 대해 나는 대사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대표단의 성격을 노 대통령 방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산자부 장관의 방문”이 아닌, 한국 경제대표단의 방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사관 직원들에게 준비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였다. 첫째, 현지에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를 위하여 대통령 궁을 포함한 정부 요로와 현지 언론 등에 최대한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B2B 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과 협회가 가능하도록 방문단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즉, 행사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B2B 접촉(상담) 준비 위주로 일정을 준비하라고 신신 당부하였다.

###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앞장서다

우리 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수 주관부서를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 한국 대표단의 구성원에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대규모 관. 민 경제대표단이라는 점 때문에 경제조정장관 실을 주관부서로 선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산자부와 유사성이 많은 자원에너지부, 아니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처 간의 경쟁과 알력이 심한 현지 사정에 비추어 자칫하면 주관부처를 잘못 선정하면 다른 부처의 반발을 사서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고민하다가 우선 외교부를 접촉하기로 하고 산 외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였더니 바로 들어오라고 한다. Hassan 장관은 몇 시간 후면 구주 순방 차 출발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면담시간을 냈다. 내가 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우리 정부 내에 “인도네시아 T/F”를 설치하여 4월 관. 민 경제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그는 대단히 반기는 표정으로 매우 고무적(encouraged)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어 4월 경제 사절단의 파견에 대하여 SBY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측도 3월 말까지 T/F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배석했던 한국 담당 국장에게 즉각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렇게 하여 경제대표단 일정추진 기관이 자연스럽게 외교부가 되었다. 당시 한국 담당 국장은 열의와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매우 유능하였다. 그는 그 후 주 영국 대사로 갔다가 외교부의 핵심인 아시아. 아프리카 총괄 총국장(차관보)을 역임하였다.

외교부가 대외관계 총괄부서인 만큼 다른 부처도 불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외교부와 하산 장관은 외교 사안에 관하여 SBY에 직접 보고하고, 앞으로 있을 SBY 한국 방문의 책임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자발적으로 경제 사절단 업무를 경제부처에 맡기지 않고 사절단(사전준비단과 본진)의 일정수선, 수행 및 결과 정리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는 SBY의 직접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리라.

SBY는 한국 경제대표단의 방문 건을 보고 받고, 지난 3년 동안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경제대표단을 보낸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인도네시아 T/F” 관련 T/F란 군대 작전 용어인데 한국이 군 작전하듯이 인도네시아와 경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욕이 감동스럽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나중 SBY 보좌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다음호에 계속)

#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자카르타 방문



2016년 대한민국 해군 순항 훈련전단 (전단장 준장 이상훈)이 11월 22일 (화)부터 25일 (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 훈련전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22번째이며 자카르타 방문은 16번째이다.

22일 오전 자카르타에 입항한 순항훈련전단은 3박 4일 동안 주요인사 예방, 함정 공개행사, 함상 리셉션, 문화 공연, 전적지 답사 및 문화탐방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순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195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해군 순항훈련은 내년 3월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에게 해군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순방국과의 군사 교류협력을 통해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상훈 전단장은 “대한민국 순항훈련전단 전장병은 금번 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양국과 양국 해군의 우호 증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라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71기 사관생도 130여명을 포함해 총 600여명의 승조원과 충무공이순신함, 천지함 등 함정 2척으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은 102일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세계 11개국 12개항을 방문할 예정이다.





##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 트럼프 발작)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11월 중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이다. 트럼프 탠트럼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이름인 “트럼프(Trump)”와 발작을 뜻하는 의학용어인 “탠트럼(tantrum)”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현상을 일컫는다.

트럼프 탠트럼은 2013년 발생한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에서 파생되었다. 테이퍼 탠트럼은 2013년 5월 당시 미국 연준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 발언 이후 신흥국 채권 및 통화 가치가 동반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진 현상을 빚낸 표현이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당선이 3년 전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만 보더라도 “발작”이라는 용어가 크게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 우려와 미국 금리 급등에 의한 자본유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가치 급락, 시장금리 상승 및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유로, 엔, 파운드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 달러지수(DXY)는 지난 11월 24일 장중 101.91까지 상승하며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같은 날 장중 달러당 68.86루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재정정책 확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두 정책 방향 모두 이면에 미국 국익 우선주의가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트럼프 정부는 내부적으로 규제완화와 감세, 미국기업 해외 공장의 본국 환류 유도를 통해 자국내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를 규제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해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국 금융산업의 부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정권 초기 경기부양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멕시코, 한국 등 주요 대미 교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환율 압박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우려했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취임과 동시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TPP에 대비해 온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탠트럼은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로, 공약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은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이 트럼프 발 정책변수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자국 금융시장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3년 테이퍼 탠트럼의 경우 그 영향이 금융시장에 집중되었던 반면, 트럼프 탠트럼은 미국의 재정투자, 무역정책 등을 매개로 하여 실물경제로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2013년 대비 하락하여 대외 지불능력이 개선된 동시에, 국가신용등급 역시 한국과 필리핀이 한 단계 상승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등급 전망이 상향조정되는 등 2013년 테이퍼 탠트럼과 비교 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 조세사면제도 / Amnesti Pajak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서 이슈화되고있는 조세사면제도(Amnesti Pajak)에 대한 궁금증을 **KEB하나은행 임창혁 PB 센터장**을 통해 풀어봅니다.

2016년 7월 시행된 Amnesti Pajak 제도에 대한 한인 동포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신고해야할지, 안 해도 될지 여전히 고민도 계속 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 가정을 말씀드립니다.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는 2015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재산'의 의미를 '소명이 어려운 재산'을 신고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동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며 이 권리를 실행, 즉 신고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오니 감안하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1. 인도네시아에 보유중인공장, 대지, 주택, 아파트 등을 법인명의로 개인명의로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지?

- Amnesti Pajak 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에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둔 외국법인이 2015년 소득세 신고서에 미신고 자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에는 제재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해 소득세 과세 및 200% 과태료 부과, 미신고자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한 재산중 최종소득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발견된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 아파트 구입은 하였으나 Setifikat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Sertifikat이 나오지 않은 아파트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신고금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 3. 신고금액은 NJOP기준으로 하는지, 구입금액으로 하는지?

- 부동산 신고 금액은 신고자 계산에 의한 공정가액 (Fair Value)입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결정하실 때 공정가액의 의미인 ‘합리적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수 있는 적정 가격’ 이란 의미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은행예금액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금액기준은 있는지?

- 은행예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은행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액면가 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5. 주식보유분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식보유분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신고 금액도 신고자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공시 가격이 있으니 2015년 12월 31일 기준 종가를 적용하시는 게 합리적 일 것입니다.

#### 6. 상기항의신고시세금을납부하여야 하는지?

- 상기 1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보유중인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기간에 따라 2% (2016년 7월~9월) / 3% (2016년 10월~12월) / 5% (2017년 1월~3월)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보유중인 자산을 신고한 경우 해당자산은 3년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출시 2016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7. 보유차량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차량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금액은 신고자가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 8. 한국외해외에있는부동산이나예금신고시상한선은있는지?

- 신고 시 별도의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한선도 없습니다.

#### 9. 한국에있는본인경의부동산이나예금도신고하여야 하는지?

- Amnesti Pajak 제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납세의무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자산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8년 시행예정인 AEOI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의해 금융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으므로 AEOI도 고려하시되, 만약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도네시아 거주기간 중에 형성된 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이거나 혹은 인도네시아로 해당 자산을 가져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10. 기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현금및골드바,보석류 등도 신고해야 하는지?)

- 현금, 금, 보석, 예술품등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자산은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액면가 액으로, 그 외의 자산은 신고자의 계산에 근거한 공정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11. 한인동포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 Amnesti Pajak 제도 신고 2차 기간에 접어든 현재, 시행 초기에 비해 본 제도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2차 기간을 이용해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현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동포여러분의 자산관리에 Amnesti Pajak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KEB 하나은행 '2017 경제 전망 세미나'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한인 동포들을 위하여 '2017 경제전망세미나'를 스나얀 물리아 호텔에서 11월 8일 (화) 개최했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 연구소가 함께 개최하는 이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경제현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과 주재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 및 정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대학교(UI) 경제대학 Faisal Basri 교수의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실장의 '인도네시아의 경기회복, 그리고 계속되는 성장', '2017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Faisal Basri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지만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5.0%를 성장해 올해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보형 실장은 루피아/달러 환율이 현수준(13,000)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인구 Bonus'가 지속되면서 소비 호조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5% 내외 성장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특히 2.5억 인구 중 61%가 35세 미만으로 소비 및 노동 측면에서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가졌고 외환위기 이후 소비 주도 성장(소비비중 56%)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5%대 경제 성장을 회복한 데 이어 2017년에도 경제성장률은 보다 개선될 전망이지만 조꼬위 정부가 제시한 2019년 7%의 성장을 달성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 베나(bena) 집들이

촬영장소 : 또라자 술라웨시  
플로레스 베나마을



**인**도네시아 NTT의 플로레스섬의 ‘베나(bena)’ 전통마을이 있다.

인간이 만든 경조사제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축제행사가 ‘집들이’이다. 높은 서까래와 지붕에 이영을 엮어 놓은 지붕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은 집 주인의 친지들과 마을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인다.

일주일간 머물면서 전통가무를 즐기며 축제의 나날을 보낸다.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일생에 한번하기도 어려운 집들이 행사에 소도 많이 잡지만 돼지들을 수 십 마리를 잡는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부족들을 만나면서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를 볼 수 있었는데, 또라자의 람부솔로(장례) 발리의 응아벤(화장)을 보았지만 베나의 집들이축제가 나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다.

이 연말에 베나마을에 집들이가 있을 것 같다.

김성월/ 여행작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 인터넷문학상 시상식을 다녀와서...

이 연주 (최우수상 한인회장상 수상작)

2014년부터입니다. 5회 인터넷문학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매해 시상식을 관람했습니다. 물론 수상자가 아닌, 수상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관람자였습니다.

시상식의 공연은 항상 흥미롭고 최고였습니다. 특히 5회 때의 '사만가요'와 6회 때의 발리 '가믈란 정공' 팀의 공연은 그 리듬과 울림이 한 동안 제 머리 속에 남았고, sns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7회 시상식은 더 특별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분들을 멀리서 바라만 보던 것만으로도 가슴 뭉뚱했던 제게 어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또 그 용기를 가상하게 봐주셨는지, 수상소식을 듣고 며칠을 설레었습니다. 장소도 특별했습니다. 게다가 찌르본 술탄의 방문과 그 무용수들의 공연이라니. 가족에게 당당히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뷔페 저녁식사도 있다고.....

식당에 들어서니 양 옆으로 꽃길이었습니다. 환대에 너무 황송했습니다. 찌르본 왕보다도 제가 먼저 드러눕고 걸었습니다. 황송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니 2층 난간에 바틱들이 드리워져 '아트 페어'라는 행사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인사동 가나아트센터 전시회에서 봤던 탐나는 바틱들이었습니다. 연구원 선생님들 또한 드레스 코드에 맞게 수려하게 차려입고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왕가의 귀부인 같은 원장님, 시간이 되면 신발을 하나 벗고 동화 속으로 뛰어갈 것 같은 채인숙 부원장님, 특히 최미리 부원장님께서 하신 한글을 소재로 만든 바틱스커트 설명은 한복과 바틱의 융합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바틱문양에 대한 설명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찌르본 왕가의 가믈란과 무용수의 공연은 또 다른 환호였습니다. 술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인 솔로와 족자의 무용공연을 보면 동작이 조용하고 유려하고 군무가 많지 않으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물론 큰 행사는 군무가 많겠지요. 찌르본 왕가의 무용도 곱게 차려입은 무희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연결되며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고혹적으로, 그렇게 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솔로 족자와 다른 점은 더 화려하고 빠른 동작의 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찌르본 술탄의 표정도 매우 흡족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상 깊었던 공연은 다른 것입니다. 매해 수상자들은 앙골롱 연주를 직접 합니다. 이번엔 저도 한 음을 잡아보았습니다. 수상식 몇 시간 전 배웠기 때문에 어설프었지만, 무대에서 직접 연주하는 떨림은 완곡을 연주하는 마음 못지않았습니다. 특히 함께 연주했던 스폴라 까미의 아이들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스폴라 까미는 전에 후원을 위해 방문을 했던 곳이라 어떤 친구들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방과 후 앙골롱 공연을 하며 학교의 재정을 보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연주가 더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자를 놓칠까 세션기타를 치는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공을 치는 아이의 눈빛은 어떤 연주자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사람들의 열기로 실내공기가 후끈한지도 몰랐습니다. 공연과 시상을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제 이름이 호명될 때는 심장이 일 하기 싫어 가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나시고랭과 삼발의 맛은 아마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항상 행사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한\*인니문화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최고의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저처럼 용기를 내어 이 열기를 관람이 아닌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의 행사도 감히 기대해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원고가 출품되어 연구원 리더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당돌하게 희망합니다.



이명호총영사와 문학상대상수상 장소명





집중! 이 사람

성실함과 장인정신으로 빛어낸 최고의 가구!

2016. 자랑스런 한국인 한민족동포대상

## 인도네시아 죠지언퍼니처 대표이사 김용재·한경순 부부

한인뉴스 편집팀은 11월 18일  
김용재대표의 인터뷰를  
위해 죠지언퍼니처 (Taman  
Cilandak 소재) 를 방문했다.



가구는 가족구성원  
처럼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예술을 현대로 잇는 장인이 있다. 영국인의 기술을, 인도네시아 땅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재현해내는 아름다운 재현가들이다. 2016. 자랑스런 한국인 한민족 동포대상은 7백2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바른 국가관과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양하고 재외동포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분을 한국 신문기자 연합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시상하고 있다. 해외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기업을 이끌며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세우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주어진다. 이 이야기는 30년에 걸친 세월 동안 묵묵히 가구 외길을 걸어온 부부의 이야기이다.

김용재·한경순 부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삶을 개척한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본래 건축과를 졸업해 가구보다 건축 설계를 먼저 했던 김용재 대표는 1974년 선퍼니처 인천공장에서부터 가구디자인 설계를 시작했으니 그의 가구 인생은 벌써 42년이 되었다.

2억 6천만의 세계 4위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우거진 산림 세계 2위의 자원국가이기도 했다. 손재주가 뛰어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민속공예품과 다민족, 다종족의 다양함은 것가락 사용으로 손놀림이 발달한 한국인만큼이나 빼어난 솜씨를 가졌다. 이러한 장점은 가구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조건과 환경이었다.



견고하고 친환경적인 가구를 만들며 목재 건조부터 포장까지 가구 공정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1986년 김용재 한경순 부부가 정착한 곳은 인도네시아 우중판당 섬마을이었다. 술라웨시 우중판당에서 2년동안 인도네시아 현지 중국계 가구 공장에서 직장생활이 시작되었다. 언어, 종교, 문화를 익히며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전혀 없는 술라웨시 우중판당에서의 삶이었다. 마을엔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 의, 식, 주, 모두를 고국에서처럼 삼시 세끼 챙기는 건 사치스런 일과였다. 어쩌다 시장이라도 갈 때 장화를 신고 갔다. 질척이는 현지 시장에서 견뎌야 하는 복장이다.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보다는 말을 타고 다니거나 배 짝 자전거 수레를 많이 이용했다. 현지인 한 명은 김용재 이사에게 중국계 현지인이냐며 물었을 정도로 부부는 현지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갔다.

조지언 퍼니처 가구 공정은 기초부터 다르다.

1. 원목을 판재로 썬서 7시간 동안 삶는다.
2. 병충해와 원목에 진을 빼낸다. (이렇게 하면 갈라 변화가 없다.)
3. 제재목을 25일 6%까지 건조 (크랙 및 휘어짐, 뒤틀림 방지)



이렇게 제재목 상태에서 원목을 삶아 썬서 말려 가공하는 이유는 한국 아파트 주거 공간이 매우 건조하므로 실내에 놓여진 가구가 갈라지는 하자를 방지 하는 목재 건조 공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가구 공장들은 고온 다습한 자연 건조로 대신한다. 한국처럼 건조한 아파트 실내공간에서는 원목가구 형태를 보존 유지하려면 반드시 함수율 6%까지 건조해야한다. 그러므로 김대표가 만드는 가구는 철저히 원목상태에서 삶고 썬서 해충 예방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정으로 한다. 페인트 역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페인트보다 원가가 비싸지만 건강을 해치는 부자재를 가구에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이는 곧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제작하는 장인의 마음이다.

김 대표는 이제까지 쌓아온 가구의 정통목공기술 이론 지식, 정보, 기능 등 모든 지적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혼자서 능력으로 버거우면 정부 또는 지자체와 논의하여 젊은이든 노인이든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 모두에게 목공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제공: Newstoday)



## [에피소드] 잊을 수 없는 첫 커피

자카르타에 부임해 오기 몇 해 전 딱 한 번 인도네시아에 출장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난 인도네시아에 대한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리의 낭만적인 백사장을 사진으로만 몇 번 보았는데 상상 속에서는 그런 평화로운 낙원이 뜬금없이 자바섬 남부 해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고 늘씬한 서양 미녀들이 손바닥만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듯 안입은 듯 해변에서 선탠하는 장면을 머리 속에 그리다가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 입가의 침까지 훔치며 출장 출발을 손꼽아 기다렸더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영화에서처럼 행상들과 거지들이 활주로까지 몰려나와 트랩에서 내리는 여행객들을 에워싸는 자카르타 공항을 상상하기도 했고 자카르타 주민들은 아침마다 타잔처럼 치타와 함께 줄타고 출근하고 나는 인디아나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우거진 열대우림에서 정글도로 수풀을 내려치며 공장에 검품하러 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상상들은 도착 당일 모두 깨져 버렸습니다. 손바닥만 그로테스크하게 커 보이는 차창 밖 도심곳곳의 동상들과 나뭇 세련된 디

자인의 고층빌딩들 모습에 급기야 압도당하다가 다음날 아침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인천 간석동, 오창 공단 등지에서 20명, 60명 짜리 소규모 봉제 공장들만 보아 왔던 내 눈에 자카르타 북부 짜궁(Cakung) 보세공단의 종업원 800명 규모의 우리 봉제공장은 실로 거대해 보였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인도네시아엔 수천 명, 수만 명짜리 공장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공장을 내가 받은 오더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치기 어린 자부심마저 북받쳐 올랐습니다.

호텔에서 나를 픽업한 공장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밤새 들어온 팩스서류 정리하는 것을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던 상담실에 암본 출신 대머리 인사부장 아리스가 싱글거리며 고개를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수카르노 정권과 대립하다가 급기야 남말루쿠 공화국을 세우며 반란을 일으켰던 암본 사람들은 훗날 수하르토 정권의 이주정책에 적극 부응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뿌리 내렸는데 거리에서는 대체로 머리보다 몸 쓰는 일을 많이 했고 때로는 그들 특유의 결집력으로 과격한 실력행사마저 서슴지 않아 실제로 마피아 같은 단체활동이나 채무해결사 같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리스(Aris)는 그의 원래 이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의 외관은 전혀 철학적이지 않았으므로 사람과 이름이 따로 노는 모습에 웃어야 할지 당혹해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아들 이름이 소크라테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난 며칠 동안 아리스의 얼굴만 봐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처음 보았던 그 날, 파푸아 식인종을 연상케 하는 그의 얼굴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랐고 싱글거리는 미소는 살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감히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상담실 문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던 순간 내 마음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리 갔!! 가까이 오지 말란 말았!!

당시 내가 배워온 인도네시아말은 달랑 세 마디였습니다.

- (1) 이니 살라 (Ini Salah - 이거 틀렸어)
- (2) 빠르바이끼 이니 (Perbaiki ini - 이거 고쳐 줘)
- (3) 바구스! (Bagus! - 조~아요).

제품 검사하러 왔으니 잘된 건 특별히 지적할 필요도 없겠지만 잘못된 게 발견되면 (1)번 이니 살라와 (2)번 빠르바이끼 이니를 연이어 말하고 제대로 고쳐졌으면 (3)번 바구스로, 아니면 (1)번 부터 다시 반복할 요량이었죠. 어휘력이 고작 그 정도였으니 하물며 아리스의 얼굴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기 직전인데 그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작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잔을 들고 훌쩍훌쩍 마시는 시늉을 하며 “꼬빠? 꼬빠?” 하고 묻는 저 말이 ‘너 커피 한 번 터져 볼래?’ 하며 시비 거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누가 봐도 커피 마시겠냐는 뜻이죠. 난 아까의 당황함을 황망히 갈무리하고 아리스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네 번 째 인도네시아어 단어를 급히 암기했어요. 꼬빠...

잠시 후 커피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또 아리스입니다.

물론 난 그의 선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처럼 본사에서 온 출장자에게 손수 최선을 다해 커피를 타주려는 성의를 말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아리따운 아가씨들도 많고 소위 오피스걸이라고 부르는 야들야들한 여자 사환도 있는데 왜 정상적 크기의 찻잔이 아이들 소꿉장난감처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크고 우락부락한 손으로 내 커피를 받침접시도 없이 들고 와야 하는 것이며 차력시범을 보이는 것도 아닐 텐데 아구까지 따른 뜨거운 커피물에 왜 엄지손톱을 반쯤 담그고 오는 것이냐 말입니다. 출렁거리다가 테이블에 약간 쏟아지면서 알갱이가득한 잔해를 남기는 새까만 커피는 이제 단백질마저 풍부해 보였습니다.

나갈 줄 알았던 아리스는 미팅 테이블 건너편에 털썩 앉아 예의 그 식인종 같은 미소를 띤 채 날 계속 쳐다보는 중이고 난 잡아 먹히지 않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주는데 역지로 잡아 늘린 얼굴근육에 자꾸 경련이 일어납니다. 아리스가 뭔가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그 얘기가 순식간에 내 머리 속에서 동시통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미스터를 위해 특별히 직접 타서 만든 커핀데 크림이 좀 모자라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내 손톱에 낀 기름이라도 짜내서... 나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모양입니다.

“실라칸 미눔, 실라칸.”

뭐 동시통역까지 되는데 이게 마시라는 얘기라는 건 동작만 봐도 알겠습니다.

군시절 회식 때 재떨이, 전투화에 소주 부어 마신 전력도 있고 그때도 아무 탈 나지 않았으니 이 커피도 못마실 건 없다고 결심은 서는데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맨손을 수동식 비데의 일부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불현듯 떠오를까요? 그게 오른손이라던가 아니면 왼손...? 실라간을 연신 열정적으로 되풀이하는 아리스의 부릅뜬 두 눈에 핏발이 섭니다. 빨리 안마시면 생명이 위태로울 판입니다.

첫 모금...!

갑자기 머리끝까지 열이 확 오릅니다. 이런 혁명적인 맛의 커피는 난생 처음입니다. 첫 모금이 목구멍을 채 흘러 내리기도 전, 혀가 얼얼하게 마비될 만큼 강렬한 단맛은 물엿보다 최소한 열 배는 더 달고 당시 우리 서울본사 앞 학다방 커피보다 체감당도가 백배는 더 단 것 같았습니다. 본사 출장자를 위해 탕비실의 설탕을 아낌없이 몽땅 투하한 것이 분명했어요. 삼키는 순간 곧바로 당뇨가 생길 것 같은 예감마저 스치는데 이 커피엔 뭔가 씹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모종의 분말들이 내 치아와 혀 위에 무수히 내려 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게 아리스 손톱에서 나온 건 아니겠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부흥회 일주일쯤 다녀온 것마냥 신앙심마저 두터워집니다.

살려면 뱉어야 한다는 갈등이 후두부를 연타하고 있었지만 코앞에서 싱글거리며 내 표정을 들여다 보는 아리스의 커다란 얼굴은 무엇보다도 강한 무언의 압력입니다. 간신히 커피를 목구멍에 넘기고 억지로 눌러 내리자 식도까지 얼얼해 지면서 등에선 식은 땀이 솟아납니다. 커피잔을 내려다보니 내 입이 닿았던 자리에 짙은 갈색 분말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황당합니다. 저 분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순간 테이블 너머에서 고개를 가우똥 45도로 높히고 나를 들여다 보는 아리스의 표정은 별식을 만들어온 주방장처럼 내 시식소감을 기대하는 겁니다. 텔레파시까지 막 되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사히 이 시련에서 벗어나려면 뭐라도 말하긴 해야 합니다. 물론 진심을 들켜서는 절대 안되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아는 몇 안되는 인도네시아어 어휘 중 마침 딱 들어



맞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난 뺨 힘줄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다시 억지웃음을 웃어 보이며 엄지손가락 치켜 들었습니다.

(3) 바구~스!

이니 살라 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살인적인 단맛의 커피는 인도네시아 코민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을 꼬삐 스투브(Kopi Serbuk)이라는 분말커피입니다. 그 커피는 몇 년 후 내가 정식 발령받아 자카르타 공장에 부임했을 때에도 여전히 제공되었지만 이번엔 상시 경계정보를 발령, 사환들에게 탕비실을 철통사수하도록 한 것은 물론입니다. 아리스의 손톱을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설탕을 좀 덜 넣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입술이 짹짹 달라붙을 정도로 늘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들어오기 훨씬 오래 전, 인도네시아는 커피에 관한 정말 일관성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커피를 타주는 사람도 무수히 바뀌었지만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커피의 강렬한 당도는 여전히 변함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나 역시 이전 커피가 충분히 달지 않으면 마실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은 인도네시아의 현실에서 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또 이곳 사람들에게겐 그런 강한 단맛이 어찌면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잔에 남은 꼬삐 스투브의 알갱이를 볼 때마다 그때 아리스가 타주었던 첫 커피를 기억하곤 합니다. <끝>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 7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공모전 대상 주인니대사상

## 까리다답의 어린 아이

장 소 명 (KOICA ODA 청년인턴)

스마랑(Semarang)에서 굽이진 좁은 길을  
서너 시간이나 가야 비로소  
보이는 산 속 작은 마을 까리다답(Kalidadap)

까리다답의 어린 아이야.  
보석 같은 네 눈망울을 보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길을 내가 헤쳐 왔는지 아니  
어두운 밤 흐트러진 돌무더기, 가파른 절벽, 우거진 수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니

누나 손을 꼭 잡고  
수줍은 듯 한발 짝 뒤에 서있던 아이가  
문득 손에 나뭇가지를 꼭 쥐고  
저 이웃집 옆 산길로 뛰어간다

‘아, 까리다답의 어린아이야.  
너는 아주 어리구나. 너는 아주 어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말하길,  
돌무더기는 공이며,  
절벽은 구름 아래 세상을 보는 창이고,  
우거진 수풀은 숨바꼭질에 제격이지요

도시의 길은 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보듬는 받침이 되던 그 날.

손에 나뭇가지를 꼭 쥐고  
저 이웃집 옆 산길에서 뿔박질 하던 아이가  
어느새 내 손을 잡고  
수줍은 듯 바라본다.

아이야.  
구름을 담은 너의 눈망울을 한 아름 안고  
난 이 곳 돌담의 부드러움을, 바람의 빛깔을,  
수풀의 속삭임을  
한껏 느끼며 떠나간단다.

‘아, 까리다답의 어린아이야.  
내가 너무 어렸구나. 내가 너무 어렸어.’





최우호 (BINUS UNIVERSITY 학생)

한국에 있을 때 친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따듯한 겨울옷을 선물 받곤 했다. 그 친구는 항상 옷을 선물하며 “생일날 감기 안 걸리게 따듯하게 입고 다녀” 라고 했었다. 내 생일은 항상 추웠었는데 이곳의 무더운 날씨 탓인지 기분 탓인지 이젠 생일이라는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친한 친구의 정겹던 말 한마디를 추억할 뿐이다.

마침 생일 때 중간고사라서 친구의 따듯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그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생일 축하한다. 예전에는 육개월에 한 번씩 오더니, 이번에는 왜 1년 동안 안 오냐? 질밥 쓴 예쁜 여자 친구라도 생겼냐?”

거기에서는 소고기 구경도 못 할텐데 빨리와. 네가 좋아하는 횡성한우 사줄게. 휴가 때 발리가면 가이드 해주냐? 아, 그리고 옷 따듯하게 입고 다녀. 몸 에다가 천만 두르고 다니지 말고. 인도도 낮에는 덥고 밤에 춥다며? 거기까지 가서 고생한다.” 무척 그림던 그 친구가 순식간에 나를 인도로 보내 버렸다. 게다가 거기가 인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명확치도 않다. 말도 안 되는 응원의 글이 나를 웃게 만든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같았으면 무식하다고 한소리 했겠지만 이젠 이런 일이 꽤 익숙하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발리는 알지만 인도네시아는 모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10년을 살았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앙글롱 연주를 들어보지 못 한 경우도 가끔 있으니깐.



자카르타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문화행사에 관심만 갖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직접 짜르본에 가지 않아도 짜르본 왕을 만날 수 있고, 파푸아에 가지 않아도 파푸아 원주민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달에 한.인니 문화연구원 ‘인터넷문학상 시상식’과 한국국제학교 ‘Indonesia festival’에 참석했다. 문학상 시상식에서 짜르본 왕도 뵈었고 앙끌롱 연주, 전통춤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수상자들의 글 또한 인상적이었고 그 글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생히 전해주는 그 이야기들이 나를 즐겁게 했다. 가끔 한 줄의 글이 열 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 교민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들의 반응도 참 좋았다. 우리도 외국

인들이 한복을 입고 장구를 치거나 또렷한 우리말로 한복의 특색에 대해 설명한다면 정말 신기하고 기쁠 것이다. 이런 행사가 두 나라를 더 가깝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주니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

한국학교의 ‘Indonesia festival’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다채롭게 볼 수 있는 행사였다.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전통의상을 입어 볼 수 있는 체험관, 전통 와양 인형극, 전통음식 만들기와 시식, 각종 향신료와 특산물 전시, 그리고 바떡 만들기 등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선율의 앙끌롱 연주, 파푸아 원주민들의 역동적인 퍼포먼스 등을 볼 수 있는 즐거운 행사였다. 특히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 행사가 오래도록 유지되어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현지인들 모두가 어울려 즐겁게 배우고 즐기는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글을 쓰다가 나를 인도로 보내버렸던 친구에게 사진을 한 장 보냈다. 파푸아 전통공연 팀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썽 그 친구가 “너 아마존도 갔나? 공부는 언제 할래? 그만 놀아라.”라고 하며 이번엔 나를 아마존으로 보내버렸다. 지극히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배우며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별개로 우리와 다른 인도네시아를 잘 배워둔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내 꿈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 꿈으로 내 친구의 말처럼 인도와 아마존, 아랍, 네덜란드가 공존하는 재밌는 인도네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싶다.



## 흘러가는 정보, 모이는 정보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지난번 원고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정보를 취합해 내고 거짓 정보를 확인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닌, 어떻게 정보를 능동적으로 유포할 것이며 그 유포된 정보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과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회사 마케팅을 위해 또는 다양한 다른 이유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정보를 유통해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정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보의 특징을 이해해서, 이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정보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흘러가는 정보가 있고, 모이는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이해할 때 정보가 주는 가치 때문에 정보를 지식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모이는 정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이는 정보와 흘러가는 정보, 특히 흘러가는 정보는 무엇이며 흘러가 버리는 정보가 무슨 가치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보는 깊고 무거운 지식을 뜻하는 정보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라도 그 시의성만 확보한다면 충분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카르타 시내에서 땅그랑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톨을 타고 가야 좋을지 그냥 일반 길을 가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지금 시각이 지나고 나면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흐르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땅그랑을 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각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이런 정보를 대형매체 (Mass Media)를 통해서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중매체가 아닌 다양한 인터넷의 채널과 특히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전에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매체는 TV였고, 조선·중앙·동아일보라 불리는 대형매체였습니다. 제가 초기 원고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은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하게 됩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과거 사회에서는 대중매체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중매체의 힘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인터넷 매체는 내가 이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만 만들 수 있다면 공유 (share)와 태그(tag)를 통해서 모든 개인이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단톡방 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흐르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기록보관 (archive)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시의성 (timeliness)이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단톡방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이 단톡방은 그냥 스쳐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단톡방에 대한 선호도를 떠나서 보면, 가장 시의성 높은 정보가 한국 사람들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채널이 카카오톡 단톡방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트위터의 정보는 흐르고, 페이스북의 정보는 모입니다. 카톡의 정보는 흐르고, 밴드의 정보는 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흐르는 곳에서 노출해야 하는 정보와 모이는 곳에서 노출해야 하는 정보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톡방의 정보는 흐르고, 흐르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의성입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방에서 홍보하시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식당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비가 오는데 따뜻한 부침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족발 삶았습니다. 하는 정보가 훨씬 효율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됩니다.

오늘은 정보, 특히 인터넷 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의 아이디어와 인터넷 정보의 특성만 잘 이용한다면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대규모 비즈니스까지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형매체만을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 자신이 내 회사가 매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적절한 콘텐츠(정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조/중/동이 아니라도 KBS, MBC가 아니라도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은 충분합니다.

내년에는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우리가 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들로 찾아 뵙겠습니다. 올 한해 박상훈 칼럼 봐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 JKS

## JKS INDONESIA FESTIVAL

인도네시아 속의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배우고, 즐기는 잔치의 마당, JKS INDONESIA FESTIVAL이 2016년 11월 22일 한국국제학교 (JKS, 교장 백우정)에서 펼쳐졌다. 직스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하지만 올해 2016 JKS INDONESIA FESTIVAL에서는 그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 날 프로그램에는 인도네시아 지역별 고유 음식 Jamu 등을 직접 보고 만드는 전통음식 체험, 자바지역 전통 그림자 인형극인 Wayang 공연,







원시부족의 의복부터 바틱까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과 장신구들을 착용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Tifa, Doll Bengkulu, Talempong 과 같은 인도네시아 전통악기를 연주해보기도 하였다. 한 편, 나래홀에서 진행된 문화 공연에서는 Arumba, Tari Piring, Animal Pop,

Tari Mambri, Tari Funky Papua dan lagu 의 무대가 펼쳐져 학생들과 호흡하는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스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사산 이태복시인 ‘민들레 적도’ 출판 기념식



사산 이태복 시인의 첫 시집으로 내놓은 ‘민들레 적도’ 출판 기념식을 11월 25일 가졌다.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은숙 작가의 사회로 양영연 한인회장, 서미숙 문인협회장 등의 축사와 김우재 한인회 명예고문의 색소폰 연주, 사산도 축하 공연으로 출간을 축하했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는 평온하고 평화롭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서 오는 기쁨을 노래한다. 멀리 바다를 건너 날아가면서도 울지 않는 적도의 꽃 그 시의 민들레는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영혼의 노래다.” 라는 시집해설을 서미숙 문협 회장이 대독 했다.

몇 년 전 땅그랑 한인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통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됐다는 이태복 시인은 “나의 정서는 인도네시아이고, 한국은 그리움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시를 쓰다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믿음으로 부족한 나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축하해줘서 감사하다.” 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양영연 회장은 “마음에 담에 두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시다. 우울한 이때 아름다운 글로 마음을 풀기 바란다.” 며 그의 시 ‘남국의 한가위’ 를 낭송하며 축하해줬다.

이태복 시인은 2015년에 시 <민들레 적도>로 계간 <문장>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자카르타 한인 라디오 방송인 ‘이태복과 함께 하는 인니이야기’ 를 진행하였으며, ‘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전’ 에 서양화를 전시한 바 있다. 이처럼 방송이나 미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경험을 하나의 삶으로 통합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UN Day를 기념하며



(학생기자 JIS 정주은)



JIS (Jakarta Intercultural School)는 다문화를 포용하는 국제 학교이다. 이 학교는 40개국을 넘는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며 융합하는 작은 국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는 다문화를 존중하는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그 중 가장 큰 행사는 국제 연합일 (UN Day)이다. 국제 연합일은 공적으로 10월 24일 화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지스에서는 매년 11월 중순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UN Day 행사는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날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UN Day 전 주에 자신이 원하는 반을 신청하고 당일날 약 두 시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반에서 문화 체험을 한다. 그 이후에 전교생이 학교 대강당에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는 연설이나 외부 출연진의 공연을 본다. 올해에는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고아원과 시설들에서 아이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다.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이 하는 인도네시아 악기 공연은 이를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그리고 한 시간 가량 학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점심을 먹었다. 이 날은 특별하게 각 나라에서 오신 학부모님

들이 나라별로 부스를 만들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신다. 학생들은 학교를 누비면서 뷔페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 점심을 다 먹은 후에는 UN Day의 꽃, 학생들의 공연 관람이 시작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문화를 존중하고 중요시여기는 JIS에는 다양한 나라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있다.

이 날 Korean club, Japanese club, Chinese club, Indonesian club 등의 열개가 넘는 각 나라별 클럽은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을 선보인다. 식전행사에는 40명이 넘는 기수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자신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세레머니로 시작한다. 올해 한국 국기를 들었던 학생은 12학년 김다운 학생이었고 그 외에도 12학년에 정주은, 심재원, 홍준기 학생들이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드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Korean club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난타 공연을 했다.

외부 도움 없이 순수 학생들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공연이었다.

그렇게 올해의 UN Day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성장하는 국제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하루였다.

# 현대사회의 치유로 거듭난 음식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김장문화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문화가 등재되었다.

사계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채소가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생명줄이었지만 현대에는 공동체적 음식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다.

## 섞음의 미학을 실천한 딱딱한 발효음식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김장문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보존해야 하는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김장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산인 것이다.

한국 밥상의 특징은 채식위주의 식단과 발효음식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음식재료의 대부분을 자연에서 얻는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情)’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만든다. 이러한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발효음식이고 한식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의 발효음식으로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 젓갈류 그리고 김치가 있다. 발효음식문화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발효음식의 특징은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서양발효음식에 비해 채소발효가 발달한 데에 있다.

독특한 방식으로 저장하는 한국식 채소음식의 한 종류인 김치는 한국인이 채소를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 중에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다. 사실 채소를 단순히 소금에만 절인 ‘저(菹)’의 형태는 중국과 일본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 김치의 특징은 이와는 다르다. 김치는 우선 배추와 같은 채소에 온갖 종류의 동식물성 양념을 적절하게 섞는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이 함께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몸에 이로운 유산균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낸다. 김치는 비빔밥처럼 ‘섞음의 미학’을 잘 실천한 음식이다. 외국에서 들어 온 고추를 김치에 이용한 지혜는 놀랍다. 고춧가루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항산화제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화 과정은 산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산화를 억제하면 노화가 더디게 진척된다. 또한, 고추는 미생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음



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일본의 채소절임과 구분되는 특징이 여기 숨어 있다. 즉, 일본의 채소절임은 소금을 저장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한다. 따라서 짜게 절여지게 된다. 중국의 채소절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김치는 고춧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된다. 크게 짜지 않으면서도 김치는 비교적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치는 발효과정에서 유산균을 생성하고 배추 자체도 섬유소가 풍부하여 장 문제로 고민하는 현대인에게 좋은 음식이다.

###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맛을 사랑하는 먹거리

김장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가포육영>에 나오는 “무를 장을 곁들이면 여름철 3개월간 먹기 좋고(得醬尤宜三夏食) 소금에 절여 9달 겨울을 대비한다(漬鹽堪備九冬支)”에서 찾는다. 아주 오래전에는 순무, 가지, 부추 등을 소금으로만 절인 형태로 먹었고, 그 후 여러 종류의 채소를 응용하면서 김치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 외국으



로부터 고추가 유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김치 형태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김치의 특성 중 하나는 단순히 소금에 절이는 것이 아니라 향채소를 곁들여 양념하는 것이다. 이 김치 담금법은 고려시대에 이미 정착되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는 파, 마늘, 생강, 여뀌, 백두옹이 주축을 이루면서 갓, 미나리, 산초, 부추 등의 양념이 추가됐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전후에는 고추가 양념으로 추가되면서 파, 마늘, 생강, 부추, 고추가 주축을 이루고 갓, 미나리, 산초를 곁들였다. 김장은 김치의 장기저장을 위한 풍습으로 진장(陳藏), 침장(沈藏)이라고도 했다. 추운 겨울 3개월이 필수 저장기간이지만 길게 잡으면 늦은 가을에서 이른 봄 햇채소가 나오는 시기까지 4~5개월도 가능했다.

속리산 법주사에 묻혀 있는 돌항아리는 신라 33대 성덕왕 19년(720)에 설치한 김칫독으로 추정하니 김장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 10월조에는 “서울 풍속에 무, 배추, 마늘, 고추, 소금 등으로 독에 김장을 한다. 여름의 장담기와 겨울의 김장은 집안의 중요한 연례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농가월령가』에는 “무, 배추 캐어 들어 김장을 하오리다. 앞내에 정히 씻어 염담을 맞게 하고,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젓국지, 장아찌와 독 곁에 중두리(독보다 조금 작고 둥근 그릇)요, 바탕이 항아리라. 양지에 가가(假家) 짓고 싸 깊이 묻고 박, 무, 알밤도 얼지 않게 간수하고”라 했다.

김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김치의 종류는 문헌에 기록된 것만 200여 종 이상이었다. 어육김치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단일 음식으로 200여 종 이상을 개발해내는 독창성을 가진 민족은 드물 것이다. 소금에 절인 채소인 ‘저’ 한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 시도해 만들다 보니 200여 가지가 된 것이다.

과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김치의 종류는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났으며 지방마다 새로운 김치가 나왔다. 가령, 남쪽지역인 전라도에서는 고들빼기김치가 유명하고, 중부지역인 개성에서는 보쌈김치가 유명한 것이 그런 예에 속한다. 제주도의 동지김치, 충청남도 홍성의 호박김치, 경기도 이천의 게걸무김치, 강화도의 순무김치 등이 한정된 산물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는 김치로 알려진 것이다. 이제 김장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현대인의 공동체 문화가 되었다.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김장은 치유의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제 곧 겨울이다. 올겨울에는 배추 몇 포기라도 김장을 해서 나눠 먹어보자.

글: 정혜경(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2016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기자회견 연 조꼬위 “폭동은 매우 실망스러워… 정치적 목적 등에 얽은 것”

4일 자정 기자회견을 연 조꼬 위도도 대통령.

4일 오후 종교지도자와의 회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땅으랑 수까르노-하마 국제공항에서의 일정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밤 12시에 무겁고 피곤한 모습으로 자카르타 르르데카 대통령궁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조꼬위 대통령은 “오늘 낮부터 저녁 기도까지도 매우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러나 저녁부터 시작된 폭력시위와 폭동은 매우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라며 폭력시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또한 확실하고, 빠르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법적 조치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 고 당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때, 대통령궁 앞에서 심각한 소요사태가 벌어지며 내각 장관들이 조꼬위 대통령의 대통령궁행을 반대했지만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입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콤빠스, 드멕 등 현지 언론은 늦은 밤까지 폭동이 벌어진 대통령궁 앞, DPR, 그리고 북부자카르타 뿐자령안 지역 등은 군경 추가 배치로 12시 40분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 조코위 대통령, 메가와띠 전 대통령과 회담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1일 투쟁민주당(PDIP) 총수 메가와띠 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오찬과 회담을 함께 했다.

현지언론 뎀뽀에 따르면 회담 내용은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 선거와 최근 정치 상황, 통일 국가 유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오늘같은 회담은 국가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거시 경제 및 내정,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다양성 속의 통일’과 빨찌실라의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 대해 “우리 모두가 형제이기에 후보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언론의 선거전 과열 보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PDIP의 후보자인 아후 후보자의 종교 모독 발언 관련 시위에 대해서도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의 배경을 모르고 참여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종교 갈등을 우려한 조코위 대통령은 메가와띠 전 대통령 이외에도 17일 그린드라당 뿌라보위 수비안또 총재와 회담하기도 했다.

## 인니 정부, 민간기업에 전력 개발 및 판매 권한 개방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국영 전력 PLN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민간기업에게까지 그 권한을 개방한다. 자바 외 지역의 전기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전력망이 충분하지 못한 파푸아주와 서부 파푸아주 2,376 마을을 포함한 전국의 총 2,500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 파푸아주 전력화 비율은 46%, 서부 파푸아주는 83%로 전국 평균인 88%를 밑돈다.

한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운송비용이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비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PLN의 소피안 바시르 사장은 “비용 회수율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진입은 어렵울 것으로 본다”고 예상하며 “(특정 지역에서) 1 킬로와트(kWh) 당 비용은 4,000 루피아(약 350원)이지만, 판매액은 400루피아(약 35원)이다. 이익 확보는 어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는 2019년까지 총 출력 3,500만 kW 이상의 발전소 건설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그나시우스 장관은 “나머지 3년 동안 연간 400만 kW를 추가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라고 말하며 “당초 목표 달성은 2024년으로 예상되며 빨라도 2021년이다”라고 덧붙였다.

## 내년 1월부터 브레미움, 솔라 가격 전국 통일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2017년 1월부터 가솔린 ‘브레미움(Premium)’ 과 보조급 경유 ‘솔라(Solar)’ 의 가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에너지·광물 자원부 장관령 “2016년 제 36 호 ‘에 서명했으며 1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동서로 넓게 펼쳐진 인도네시아는 지역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크다. 자바에서는 브레미움 가격이 1리터당 6,450루피아, 솔라가 5,150 루피아인데 반해 파푸아 주 산악 지역에서는 리터당 6 ~ 10만 루피아에 거래가 되는 등 물류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파푸아는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최대 10만 루피아까지 판매되는 등 너무 비싸다.

인도네시아 서부, 중부, 동부가 모두 같은 가격에 휘발유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국영기업장관과 뿌르따미나 사장은 리터당 7천 루피아에 공급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밝혔지만 나는 ‘이건 이익과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고 말한 바 있다.

국영 석유 기업 뿌르따미나 관계자에 따르면 파푸아 주와 북부 깔리만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통일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민국, 한국인 '불법 신분증 취득' 으로 체포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국인 1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수라까르따에서 구금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붙잡힌 한국인 Y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표기된 내국인 주민등록증(KTP)과 운전면허증(SIM)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라까르따 이민 당국 직원은 28일 “비자 검사 당시 Y씨가 자신이 인도네시아 뿌띠아낙에서 태어났다고 인도네시아 KTP와 SIM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바하사 구사력에서 외국인 티가 났고, 한국 국적의 여권이 발견됐다. 또한 KTP와 SIM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국 측은 해당 한국인이 실제로는 땅그랑에 거주하며 근로활동 당시 지인의 도움을 받아 KTP와 SIM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플라튼 소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Y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KTP를 취득하기 위해 당시 이민국 직원에게 100만 루피아(약 8만 8,000원)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수라까르따 이민국의 이민법 관리감독부 아디 뿌르완또 부장은 “그는 현재 수라까르따 이민국에 구금됐다. 이민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 따라 이민법 위반 행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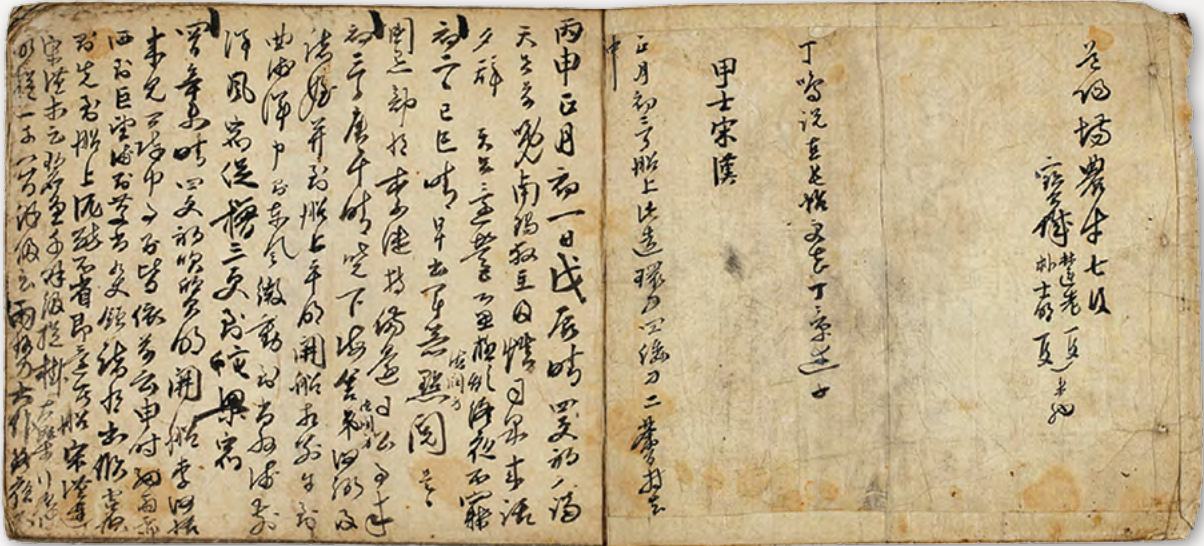
한편 10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비자 조사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700명이 불법 장기체류, 거주 비자 위조 등의 이민법을 위반해 체포됐다. 이 중 중국인이 20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이지리아(74명), 인도(72명), 필리핀(54명), 말레이시아(40명) 국적 외국인이 뒤를 이었다.

이민국에 적발된 한국인 Y씨의 가짜 신분증을 들여보이고 있는 이민국 직원.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난중일기’

일기에는 날마다 있었던 군대 안에서의 생화, 교전상황, 국정에 관한 솔직한 감회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난중일기 <문화재청>

불멸의 시간이 기록으로 인정받기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난중일기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은 임진왜란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덕분에 총 9권으로 구성된 『난중일기』에는 왜란 당시의 상세한 전쟁 기록은 물론 조선시대 사회 전반의 모습과 이순신 장군의 진솔한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우리의 『난중일기』를 소개한다.

전쟁 중에도 붓을 놓지 않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순신은 한 번도 『난중일기(亂中日記)』라는 제목의 책을 써본 적이 없다. 다만 13만여 자에 이르는 자신의 일기를 묶어 『임진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등의 표제를 붙여놓았다.

이 일기들이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정조 때로, 임진왜란 발발 200년이 되는 1792년(정조 16년)에 왕은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가증(加贈)했다. 아울러 이순신의 글과 그에게 준 글들을 모아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했다. 이때 편찬자들이 ‘전란 중의 일기’를 묶어 편의상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붙여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해군사령관이었던 임진왜란 기간 중 군중(軍中)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다. 모두 9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진왜란 발발(1592년 1월) 이후부터 그가 1598



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다. 비록 『을미년일기』(1595년 분) 1권이 전해지지 않지만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일기에는 『을미년일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성 면에서는 거의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왜란 속에 태어난 『난중일기』는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순신이 전사한 뒤 본가에서 대대로 보관해 일제강점기에도 유실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으나 1960년대 한 차례 도난을 당하고 되찾은 후부터는 소유자인 문중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닳은 부분과 꺾임, 얼룩 등의 손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2014년 9월까지 모두 보존처리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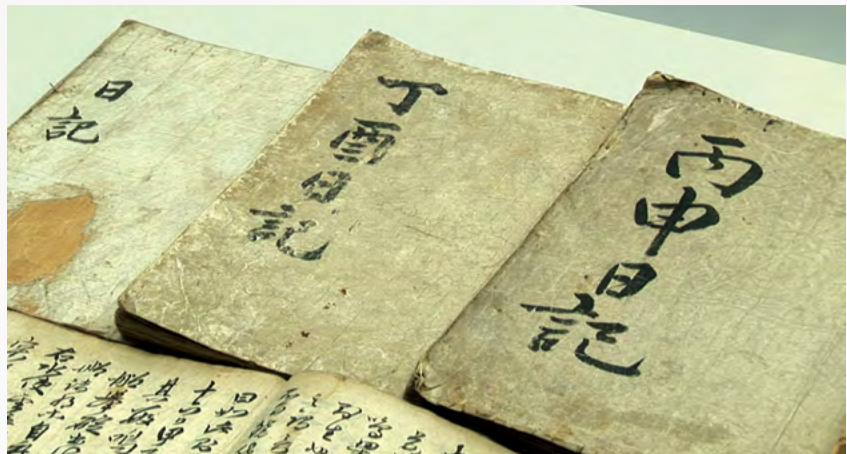
단순한 기록물, 그 이상의 가치

『난중일기』는 400여 년 전 당시 전쟁의 해군 최고 지휘관이 직접 군중의 상황을 기록한 일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일기에는 날마다 있었던 군대 안에서의 생활, 교전 상황, 국정에 관한 솔직한 감회는 물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가족·친지·부하·장졸·내외 요인들의 내왕, 부하들에 대한 상벌, 충성과 강개의 기사, 전황의 보고, 장계(狀啓) 및 서간문(書簡文)의 초록 등이 실려 있어, 임진왜란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세계 최초의 장갑선(裝甲船)’이라고 알려진 거북선에 관한 기록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이 직접 전통 한지에 붓으로 기록한 친필본 일기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있다. 초서체 형태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장이 간결하면서 서체 또한 매우 아름다워 문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이다. 이처럼 『난중일기』는 그 희귀성과 원형성,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에는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고, 지난 2013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삶의 지혜와 참된 리더십을 일깨워주는 『난중일기』. 선조들의 노력으로 그 불멸의 기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 후대의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글: 박병모(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 연구소 소장)





## 조각난 풍경 작가 이원기

<조각난 풍경> 연작은 작가가 자신의 슬픔으로 부터 일구어 낸 삶의 객관화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삶 중에서 가장 애달픈 기억으로부터 이루어진 자기 관찰을 작품화 한 것으로써 작가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화폭에 또는 체감적인 공간 안에 담아 낸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 한참 힘들어 할 무렵, 그가 키우던 선인장 화분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작가는 그 사건을 훨씬 큰 고난의 축소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때에 문득 스친 감상을 또 다시 예술의 장이라는 확대판으로 크기에 균형을 맞춰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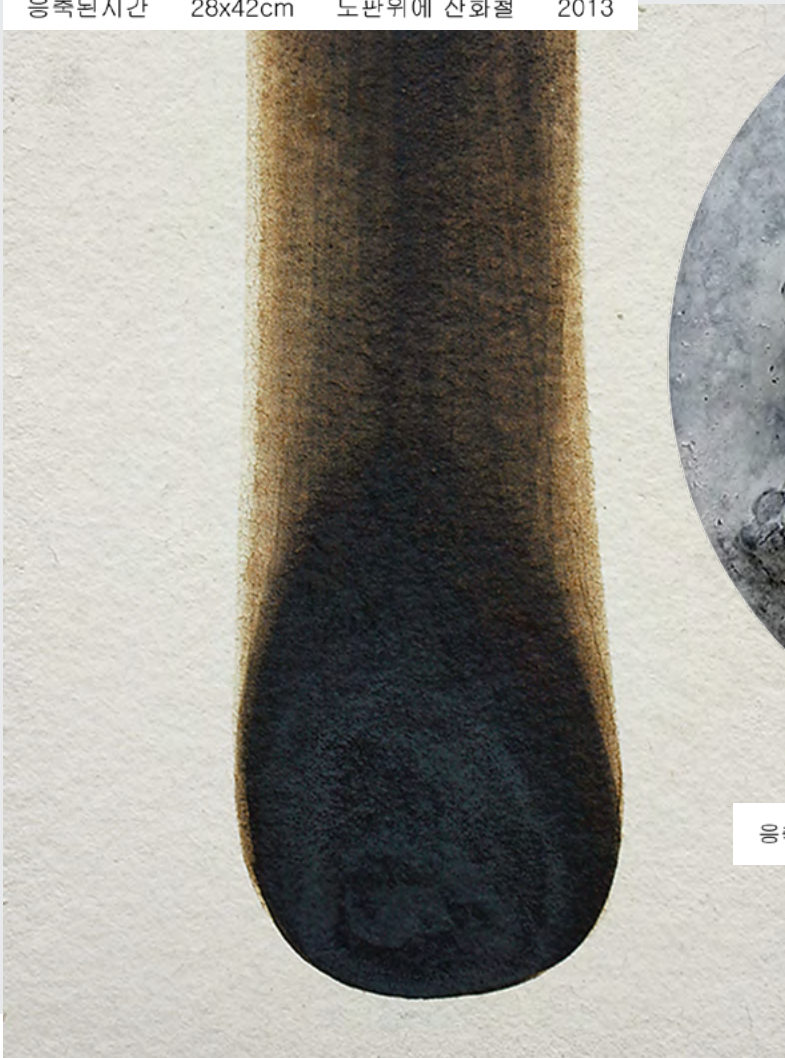
자연으로부터 이식되어 작은 풍경을 이루었던 선인장이 다시 주위 담을 수 없는 파편으로 변한 사실이 작가에게 꼭 황망함으로만 느껴졌을까? 그 순간이 오히려 역설적인 쾌락을 품은 매혹이 될수도 있지 않았을까?

작가가 앓았던 우울증은 한 폭의 그림에, 또는 설치미술을 통해 공간화를 이룬다.

이제 그는 얼마간의 행복을 느끼며 살까?

이원기 작가의 미술에는 그동안 지나왔고, 지금 지나가고, 나중에 다가올 운명 그 이상의 징표가 담겨있다. 그의 작품은 감정의 섬세한 파동과 같은 부정형의 이미지를 몇가지 형식에 가두어 넣어서 공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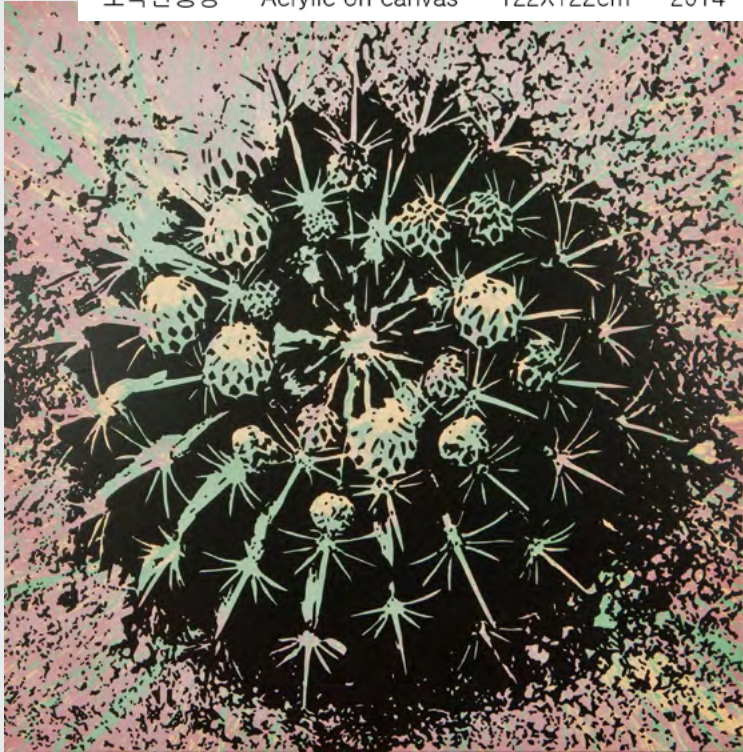
응축된시간 28x42cm 도판위에 산화철 2013



응축된시간 Diameter 16cm 시멘트 위에 바누시 2015



조각난풍경 Acrylic on canvas 122X122cm 2014



가려진풍경 - Mist Mixed media on canvas 244 X 170 cm 2010

그는 이 틀 속에서 단 몇개의 필획과 색을 가지고, 미술이 허용하는 이 세계의 모든 나머지 형상과 색을 반대편에 밀어 넣고 그것들과 대립해 왔다. 말하자면 이 대립 구도 속에서 저 편에 있는 형태와 색을 하나씩 포용해 받아들이는게 그의 미술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다. 모든 아픔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다. 오직 그것만이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을 끌어 안을수 있다.

“우울증에서 시작된 마음의 변화로 인해 작업실 주변 풍경을 보고 체험하며 관조적으로 관찰한후 실제 풍경과 심상의 풍경의 경계 사이에서 자연현상과 풍경대상에 감정을 이입시키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정서적 반응을 극대화 하고자 회화매체가 가진 물질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화면에 대상과의 공간감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풍경이 가진 본래적 형상을 넘어 풍경에 대한 본인의 심상을 표현하고있다. 가시적인 소재와 체감적인 소재들 속에서 파생된 모호한 형상과 자연현상의 공간들을 해석하여 자연현상의 체험적 경험을 통한 공간의 해석과 안개, 숲, 어둠, 바람을 통해 구상과 추상의 미묘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감정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감정과 정서의 반영으로 인해 불확실하고 모호해진 풍경의 이미지들 사이에서 심상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며 주변에서 볼 수있는 풍경들을 내면으로 끌어와 현실의 풍경과는 다른 풍경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응축된 시간’ 과 ‘피빛 향연’ 의 설치 작업을 통해 공간에 점을 찍는 형태의 설치를 이용하여 공간에 큰 원형의 정원을 만드는 개념으로 실제 소금 풍경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에 대한 오브제로써 전통적인 방법론을 넘어 현대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풍경을 통해 표현해 봄으로써 평면에서 입체, 설치의 요소까지 다양한 실험을 기반으로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작가노트-

권미선(인니 한인미협)



# 기억의 숲에서...



이 은 미 / 수필가, 인니문협회원  
kakiya9@hanmail.net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온 기억의 숲에서 그리움과 추억을 되새기는 일인 것 같다.

잊지 못할 아련한 추억은 현재의 삶에 무한한 원동력이 되어 주기도 한다. 유년 시절의 슬픈 기억은 한편의 삽화가 되어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초등학교 입학울 앞두고 엄마가 사온 새 운동화 생각에 잠을 설치다 겨우 새벽녘에야 깜빡 잠이 들었다. 뒷마당 우물가에 햇살이 조각조각 숨어들고 잠결에 컷불을 스치는 손길을 느끼며 퍼뜩 잠이 깬다. 손끝에서 묻어나는 익숙한 냄새, “일어나야지, 오늘 입학식 날이잖아!” 정이 잔뜩 묻어 있는 아버지의 나지막한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는다.

햇살이 마루 끝에 잠시 놀다간 오후에 엄마는 나의 목에 보자길 하나 두르고 분무기로 푹푹 머리 카락을 적셨다. 한 손으론 앞머리를 푹푹 누르며 반듯하게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다. 세수를 하고 몇 번이나 물을 발라 공들여 빗질을 해봐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첫 입학울 앞두고 어려운 살림에 엄마가 사주신 토끼 무늬가 새겨진 노란 스웨터를 입고 세 살 박이 동생과 함께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기분이 좋아져 의젓한 학생처럼 어깨를 쭉 펴며 싱긋 웃어 본다. 아버지는 나를 덥석 안아 자전거 뒤 군용 담요를 깔아놓은 짐칸에 앉힌다.

집과 병원만 거의 오가던 아버지와 나의 첫 번째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마루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나, 동생은 큰방에서, 잦은 기침소리가 떠나지 않던 아버지는 작은방에서 혼자 지냈다. 언제부턴지 서쪽 창으로 붉은 노을이 지는 작은 방에 늘 혼자 계셨다. 그런 아버지가 어린마음에도 하염없이 슬퍼 보였다. 아버지의 잦은 기침 소리는 웅색한 살림 구석구석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가끔 약 심부름을 시켰고 때론 잔돈푼을 건네주면 굳것질로 허기진 정을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가는 일 말고는 거의 외출이 없으신 아버지가 나의 첫 번째 입학식에 따라 나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야윈 등에 얼굴을 깊게 묻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둘만의 나들이가 제발 깨지지 않기를 두 눈을 꼭 감고 빌었다. 희뿌연 흙먼지가 날리는 학교 운동장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아이들은 천방지축 인파 속을 헤집고 다닌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겨우 줄을 맞추어 선다. 추운 날씨 탓인지 코를 훌쩍이며 부모를 찾아 울어대는 아이도 있었다. 모래 바람이 너울처럼 번지는 삼월, 입학식이 진행되는 운동장 어디에도 붉은 아직 없었다. 식이 시작되고 행여 아버지를 돌아보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움에 마음속으로 주문을 건다.



얼을 센 뒤 돌아보면 나를 보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다. 아버진 자전거 짐칸에 올라 타셨는지 키 큰 미루나무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줄곧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듯 눈이 마주치자 얼굴 반을 덮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풍차처럼 팔을 휘휘 저으신다. 나 여기 있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듯 입가에 환한 웃음을 매달고 계신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바늘에 콕콕 찢린 듯 아프다. 햇살을 받으며 무심히 신발코로 땅을 파 흙먼지를 일으키며 툭툭 발장난을 친다. 일찍 슬픔을 배우는 중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윈 아버지 등에 얼굴을 묻으며 비릿하고 시큼한 약 냄새가 흥시 삭는 냄새 같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내 달고나 한 개 사주라” “그래, 알았다, 사 주고말고”. 하며 자전거 페달에 힘을 준다. 너무 기뻐서 지나가는 또래들에게 자랑 삼아 말한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달고나 사 준다’. 아무도 묻지 않는 말을 큰소리로 외쳐본다. 연탄불에 국자를 올리고 달고나에 소다를 조금 넣어 잘 부풀어 오르면 입이 델 것 같이 뜨겁다. 먼저 한 숟가락을 떠서 작은 입으로 호호 불어 아버지 앞에 내민다. 어린 마음에 달고나 라도 많이 먹으면 웬지 아버지 기침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보채는 탓에 한 숟가락 받아먹는 아버지 앞에서 나는 활짝 웃으며 스스로 대견한 듯 묻는다. “맛있지? 아버지! 진짜 맛있지?” 그날 저녁 작은 방에서 들리던 기침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더욱 심해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우울해지고 있었다.

내일도 아버지하고 학교 갈건데, 내 마음은 아랑곳 않고 엄마의 걱정 섞인 잔소리는 문지방을 넘어 가족들의 귀를 긁는다. 이불 속에서 숨을 막고 소리죽여 운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작은 방에서 울리는 기침소리는 목구멍을 삼키는 울림이 되어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작은방 앞에서 눈치부터 살피는데 “학교 가자 어서 준비해라” 문틈을 새어 나오는 소리에 뿔 듯이 기뻐지만 짐짓 엄마의 기분까지 생각하느라 제법 태연한 척 속내를 감춘다. 아버지는 가끔 손님이 오시면 꺼내 입는 자주 빛 잠바를 입으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보기 좋다. 목도리까지 하니,

우리 아버지 참 미남이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해진다. 며칠간 아버지와 나들이에 때론 구멍가게에서 호떡을 사먹기도 하고 뽕기도 하며 달달한 행복에 젖어 들었다.

엄마 몰래 아버지와 비밀들이 하나, 둘 쌓여가는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거세져 밤새 엄마의 간호를 받아야 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첫날부터 느꼈던 조마조마한 느낌이 현실이 된 것이다.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 아픈 몸을 억지로 견디며 입학식에 따라 나선 것을, 그것으로 아빠와, 나만의 나들이가 마지막이 되었다. 내일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는 그렇게 원하는 날이 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웬지 물어보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괜 시리 자전거를 발로 한번 툭 차본다. 문간에서 축 처진 누렁이 귀에 대고 “엄마 미워 아버지 미워”. 눈물이 툭툭 떨어져 누렁이 귓가를 적신다.

잠시 기억의 저편을 떠돌고 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나를 크게 부른다.

사진첩에 있는 낡은 흑백사진 한 장에서 애달픈 그리움과 회한으로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다.

세월의 강을 건너 여덟 살 아이로 돌아갔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 유년 시절의 사진 한 장은 그렇게 생겼다. 사진 속의 나는 우울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눈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은 슬픈 모습이다. 딸아이는 엄마는 어릴 때도 눈꼬리가 내려가 순해 보인다는 둥, 머리모양은 왜 이런가 등, 놀리며 웃는다. 나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다. 오랜 병고로 자식을 욕심껏 사랑하고 겨안아줄 수 없었던 고통의 무게를 어찌 견디셨을까? 우리 곁을 떠날 때 엄마와 나의 손을 꼭 잡고 남긴 한마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마지막으로 잡은 아버지 손은 더없이 따뜻했다. 사진 속 내 어린 얼굴 위로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나가고 내 유년시절의 슬픈 삽화와 함께 그리운 시절인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요즘 밴드를 통한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도 많이 하다보니 택배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택배는 불가능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더군요. 고젝과 같은 오젝 서비스 또는 띠끼(Tiki), JNE 같은 일반 택배 서비스에도 직접 자택까지 기사가 와서 물건을 픽업하고 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번거롭지 않게 물건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유용한 택배 서비스, 어려워 마시고 한 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9. 고젝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및 택배 기사와의 대화

# 고젝 택배 서비스 이용법

- ①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고젝(GO-JE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다
- ②휴대폰 GPS 설정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 ③고젝 어플을 누르면 메인 메뉴에서 초록색 박스 그림이 그려진 ‘GO-SEND’ 메뉴를 누른다.
- ④이어서 상단 Pickup란에 물건을 보내는 사람의 주소(물건 픽업 장소)를 기입한다.
- ⑤Pickup란 아래의 Destination란에 물건을 받는 사람의 주소(물건을 보낼 곳)를 기입한다.
- \*기입시 하단에 비슷한 주소지가 여러 개 뜨기 때문에 가장 맞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다.  
주소 기입란 오른쪽 끝에 펜 모양을 누르면 상세주소 기입이 가능하다.
- ⑥기입을 완료하면 하단에 예상 택배비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안내된다. 맞다면 하단 NEXT를 클릭한다.
- ⑦픽업장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고젝기사를 찾고 있다는 안내문이 뜨고, 곧 택배기사 사진과 연락처 등이 뜬다. 기다리면 완료! (발송인이나 수령인이 고젝 기사에게 요금을 내면 된다.)

# 주문을 받은 택배기사가 고젝 신청자(물건 발송인)에게 전화를 건다.

**A: Siang. Ini Mrs. Choi? Saya dari Gojek.**

(안녕하세요? 미세스 최 맞으신지요? 고젝에서 연락드립니다.)

**B: Siang. Saya Mrs. Choi sendiri.**

(안녕하세요? 제가 미세스 최입니다.)



**A: Saya mau jemput barang di alamat 000. Kira-kira ada orang di rumah?**

(제가 000에서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댁에 누가 계신가요?)

**B: Ya, ada. Boleh pick-up sekarang. 또는 Ya, ada. Saya dah titip barang ke asisten rumah tangga.**

(네, 있어요. 지금 가지러 오세요. 또는 네, 있어요. 제가 가정부에게 물건을 맡겨놓았어요.)

# 물건을 픽업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

**A: Sore. Saya dari Gojek. Ini Mrs. Lee, ya?**

(안녕하세요. 고젝에서 연락드립니다. 미세스 리 맞으신지요?)

**B: Ya, Benar. Pak, dari Apartemen Kintamani ya?**

(네 맞아요. 키타마니 아파트에서 오시는 거죠?)

**A: Iya, bu. Tapi Saya kurang tahu jalan di slipi. Patokannya di mana?**

(네, 사모님. 그런데 제가 슬리피 길을 잘 몰라서요. 어디와 가깝나요?)

**B: Dekat Gedung Grand Slipi Tower. Di sebelahnya ada apartemen Slipi.**

(그랜드 슬리피 타워 건물과 가까워요. 그 옆에 슬리피 아파트가 있어요.)

**A: O, gitu. Oke bu. Saya coba cari. Ditunggu, ya.**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기다려주세요.)

#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파트 경비가 고젝 기사를 못 들어가게 하자, 고젝 기사가 다시 물건 수령인에게 전화를 건다.

**A: Bu, Saya sudah sampai di lobi. Tapi satpamnya bilang saya ga boleh naik.  
(tapi satpamnya melarang saya naik.)**

(사모님, 저 지금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샷빔(경비원)이 저를 못 올라가게 하네요.)

**B: Boleh saya bicara dengan satpamnya?**

(그 샷빔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A: Sebentar ya.**

(잠시만요.)

**B: (샷빔과의 통화) Sore, pak. Pak, Saya Mrs. Lee di unit 8C. Saya yang pesan gojek, suruh naik aja ya, Makasih.** (안녕하세요? 저는 8C호에 사는 미세스 리입니다. 제가 고젝을 주문했어요. 바로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 O, gitu, bu. Oke. Saya suruh naik ya.**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라고 할게요.)

이 밖에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택배 업체로는 JNE나 TIKI 등이 있습니다. 각 택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콜센터 번호가 안내되어 있는데 전화를 걸어 Pick-up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고 픽업 주소를 알려주면 가까운 대리점에서 택배기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택배기사는 물건의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반(Regular)과 특송(express 또는 Overnight service)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묻습니다. 택배 요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며, 송장을 받으면 택배 보내기 완료! 또한 고젝처럼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 한 번 시도해보세요.

☎TIKI 콜센터(021-1500-125) / JNE 콜센터(021-2927-8888)

##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 씻다? 청소하다? 세차하다?

이럴 때 쓰는 말로 **bersih, cuci** 등이 있습니다. 물을 끼얹어 청소하는 것은 보통 **Cuci**를 쓰는데 설거지를 하다는 **Cuci Piring**, 세차를 하다는 **Cuci mobil**, 머리를 감다도 **Cuci rambut**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청소의 의미의 청소하고 있다는 **membersihkan**(원형 **bersih**)와 **bersih-bersih**를 씁니다.

-**Saya sudah bersih-bersih kamar.** (저는 이미 방을 청소했어요.)

-**Ayu lagi(sedang) membersihkan dapur.** (아유는 부엌을 청소하고 있다.)

-**Pak Jaja sudah cuci mobil tadi pagi.** (자자씨는 아까 아침에 세차를 했다.)

# Baru OKE!

**Baru OKE kalau ke KODAK!** 어느 사진 필름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코닥으로 가면 새로운 사진이 OK!” 일까요? 2번 “사진은 역시 코닥이야!” 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Baru**는 일상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이지만 회화에서는 ‘~에서야’라는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Hari ini baru terasa sehat.** (오늘에야 몸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다.)

-**Orang itu masih baru?** (저 분은 새로 오신 분인가요?)

-**Baru kemarin mulai masuk.** (어제부터 나오신 분이네요.)

Baru와 함께 Baru에 접미사 -an이 붙은 barusan(방금)도 많이 씁니다.

-**Saya barusan selesai kerja.** (난 방금 일이 끝났어.)

-**Barusan gempa di Surabaya.** (방금 수라바야에 지진이 났어.)

-**Ayahnya barusan pulang.** (아빠가 방금 퇴근하셨어.)

약간 어렵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인도네시아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Energi terbarukan**입니다. **Baru**에 **ter-**kan이 붙어서 새로 재생한다는 의미가 났습니다.

# 사실은 말이야..실제로는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나?

**Sebetulnya**와 **Sebenarnya**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입니다. **Betul**(바른, 정확한), **benar**(올바른, 공정한, 진실된)이 원형입니다. 회화에서는 **Justru**(바로, 사실은)도 매우 자주 사용하지요.

-**Sebetulnya siapakah yang salah?** (정확히 말하면 누가 틀린거야? 누가 잘못된거야?)

-**Justru dia yang salah, bukan saya.** (사실대로 한다면, 그가 틀렸고 나는 아니야.)

-**Sebenarnya, dia hanya salah paham sama saya.** (사실은, 단지 그가 나에게 오해를 한 거야.)

# 기계를 수리하다? 습관을 고치다? 자료를 수정하다?

-**Coba, betulkan mesin itu.** (그 기계 좀 고쳐봐.)

\*membetulkan은 고치다, 바르게 하다는 뜻. ‘고장난 기계를 고치다’는 **memperbaiki**를 씁니다.

-**Dia sering terlambat. Jadi dia harus merubah kebiasaannya i ni.** \*kebiasaan 습관, 버릇

\*습관 등을 고친다는 표현에서 고치다는 merubah를 쓴다. **Ben-ubah**는 스스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me+ubah=merubah**는 고쳐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olong data-data ini diperbaiki dan diperiksa lebih teliti. (이 자료들을 정정하고 다시 잘 검토하세요.)

-Kamu harus membetulkan laporan ini sesuai dengan data.

(너는 이 보고서를 데이터에 맞게 고쳐야 한다.)

\*자료를 정정한다, 수정한다는 표현은 (mem)betulkan이나 (mem)perbaiki를 사용합니다.

## 10. 우기에 쓸 수 있는 말

상황1 - 감기 조심

A : Hujan terus seminggu ini. Banyak orang kena pilek/flu.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네. 사람들이 코감기에 많이 걸렸어.)

B : Ya. Dingin hari ini. Aku mau matikan AC. Boleh ga?

(응 오늘 춥네. 나 에어컨 끄고 싶은데, 그래도 돼?)

A : Ya. Tidak apa-apa. Sebaiknya kamu minum teh jahe panas biar jadi hangat.

(응 괜찮아. 너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몸이 따뜻해지도록.)

상황2 - 병원에서

A : Siang, dok. Saya diare terus dan pusing. Ada demam juga.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제가 계속 설사를 하고 머리가 아파요. 열도 나요.)

B : Sejak kapan? Sepertinya Anda sudah makan makanan yang basi.

(언제부터요?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요.)

A : Iya dok. 3 hari yang lalu, Saya makan bakso di kaki lima. \*kaki lima = 길거리 노점

(네 선생님. 3일전에 제가 노점에서 박소를 먹었어요.)

B : Makan bubur putih dulu. Saya kasih obat ya. Minum obat ini sehari 3 kali setelah makan ya.

(일단 흰 죽만 드세요. 제가 약을 드릴게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사 후 드세요.)

\*코감기(pilek), 기침(batuk), 콧물(ingus), 복통(sakit perut), 소화불량(gangguan pencernaan), 설사(diare), 무기력하다(lemas), 두통(pusing, sakit kepala), 열이나다(demam), radang(염증), meriang/masuk angin(몸살), bengkak(붓다), 삐다/젖질리다(terkilir, salah urat), 뜨거운 물에 데이다(tersiram air panas), 저리다(nyeri), 경련(kejang), 예방접종(imunisasi), 다래끼(timbil), 쥐가나다(semutan), 충치(gigi berlubang), 치아스케일링(membersihkan karang gigi), 부작용(efek samping), mabuk(멀미, 취하다는 뜻도 있음), 처방전(resep)

상황3 - 비가 오는 도로 위 차 안에서

A : Hujan deras banget. Anginnya juga kencang. \*kencang 거세게

(비가 엄청 내리네요. 바람도 엄청 세게 불어요.)

B : Ya. Di situ sudah ada genangan air. Banyak motor lagi menunggu di bawah jembatan.

(네. 저기 이미 물웅덩이가 있네요. 오토바이들도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genangan 웅덩이

A : Pak, Hati-hati nyetirnya, ya. Kelihatannya jalannya sangat licin.

(기사님,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길이 매우 미끄러워 보이네요.)

\*nyetir = me + setir(운전하다는 동사 menyetir를 줄인 것)

# 인도네시아 민법(1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지난 호에 이어

## 11.6. 계약의 종류

민법에 나타난 계약의 종류는 유명(有名) 계약과 무명(無名) 계약, 두 종류가 있다. 무명(無名) 계약이란 민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제 계약을 뜻하며, 민법에 나와 있는 유명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파트너십계약, 법인계약, 증여계약, 임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위임계약, 중신정기금계약, 현상계약, 채무보증계약 및 화해계약, 이상 15 종류가 있다.

### 11.6.1. 매매 계약

Seller와 Buyer 간에 매매에 합의하면 양측에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Seller는 파는 물건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1.6.1.1. 매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매 의사를 밝힌다.

11.6.1.2. 파는 물건을 Buyer에게 양도한다. 판 물건을 양도하는 방법은

- i) 판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판 물건에 대한 장악권을 양도한다.
- ii) 판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Buyer가 해당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관공서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매매 혹은 권리변경 증서를 양도한다.
- iii) 채권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는 양도증서로 양도한다.

11.6.1.3.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i) 인계에 들어가는 경비는 Seller가 부담하고 인수에 들어가는 경비는 Buyer가 부담한다.

ii) 인수인계는 매매하는 물건이 매매 합의 시 위치해 있는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iii) Buyer가 물건 대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Seller는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11.6.1.4. 판 물건에 매각 당시 알려지지 않은 하자가 발견 시에는 Seller는 Buyer가 지불한 물건 대금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운전중인데 엔진에 결함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판 회사는 Buyer에게 자동차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 추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 UN 협약 제30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된 Seller의 3대 의무

A.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B. 파는 물건에 관한 관련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C. 파는 물건의 소유권을 Buyer에게 다음과 같이 인계해야 한다.

C.1. 파는 물건이 수송을 요하는 경우에는 Buyer에게 인계하도록 수송업체에게 1차로 인계한다.

C.2. 수송되는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Buyer에게 보낸다.

C.3. 파는 물건을 계약한 일자에 맞춰 인계한다.

C.4. 파는 물건의 수량, 품질 및 포장을 계약한 대로 인계한다.



C.5. Buyer가 특정 조건으로 물건을 산다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여하한 클레임도 없는 상태의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C.6. 파는 물건이 여하한 지적재산권상의 위반이나 클레임이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 UN 협약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에 규정된 Buyer의 의무

A. Seller로부터 산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

B. 계약한대로 물건 대금을 Seller에게 지불해야 한다.

C. 계약한 물건을 인수해야 한다.

### 11.6.2. 임대차 계약

11.6.2.1. 임대차란 동산 혹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하여 사용비를 지불하기로 임대자와 임차자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

대차 계약은 관행상 서면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자에게 유리하게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

#### 11.6.2.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i)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ii) 임대차 및 임차자의 자격 및 인적 사항

iii) 임대차 목적물(사전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서 원본을 확인한다), 규격 및 부대시설물 표시

iv) 임대차 기간

vi) 임대차비 및 지불 조건

vii) 임대자의 권리 : 임대비와 임대 보증금을 임차자로부터 받는다.

viii) 임대자의 의무 : 임차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넘겨준다.

ix) 임차자의 권리 :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아무런 방해없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x) 임차자의 의무 : 임대차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선의로 보호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가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xi) 벌금 : 임차자가 임대차비 지불 기일을 어기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지연 시 벌금을 지불한다.

xii) 해약 조건 : 임대자 혹은 임차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 시에 상대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xiii) 화재 보험 부보 : 화재 발생 시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자기 비용으로 화재보험에 부보토록 한다.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는 임대자의 책임이다.

xiv) 제세공과금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에 관한 세금, 재산세는 임대자가 부담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공과금은 임차자가 부담한다.

11.6.2.3.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책임 소재  
민법은 임차자의 잘못이 없는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그 책임 소재와 사후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임대차 목적물이 완전 훼손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하며 그 복구 책임이 임대자에게 있으며 임대자가 손해를 감당한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ii) 임대차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비 감액 혹은 임대차 계약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물 부분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 11.6.3.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십이란 두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형 재산 혹은 무형 재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민사계약을 뜻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파트너십의 형태는 변호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사무소, 메디칼 클리닉같은 전문 분야 사업가들의 파트너십이다.

#### 11.6.3.1. 파트너의 의무

i) 투자하기로 약정한 유형 혹은 무형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ii) 각 파트너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수익을 파트너십에 보고해야 한다.

iii) 각 파트너는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십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1.6.3.2. 파트너의 권리 : 출자 지분대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11.6.3.3. 파트너와 제삼자 간의 관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파트너에게만 제삼자와의 관계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파트너는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삼자와 법률행위가 없는 파트너일지라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파트너에게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파트너에게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 11.6.3.4. 파트너십 종료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면 파트너십이 종료된다.

i) 파트너십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ii) 파트너십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파트너십 목적이 달성된 경우

iii)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문 으로 파산이 선고된 경우

iv)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장기 와병으로 파트너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호에 계속)



## 한인회 한\*인니 문화연구원 300회 특집 문화탐방 축제의 날 찌르본(Cirebon)과 꾸닝안(Kuningan)에서



글: 홍재환 (KOICA 공공행정전문가)

참 오래 기다렸다.

어렸을 적 소풍보다, 아니 수학여행보다도 더 설레었다. 이러한 외박을 포함한 단체 여행은 정말로 수십 년만의 일이었다. 더구나 우리는 축제에 참석을 한다. 찌르본의 바틱, 왕궁과 왕과 함께 하는 전통 극, 그리고 꾸닝안 찌구구르(Cigugur)의 추수 축제(Seren Festival)를 탐방하는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기획은 자못 짝 짜여 있었다.

설레느라 잠을 설치서인지 막상 당일 늦잠을 자서 탐방 처음부터 일행에게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원장님의 탐방기 작성 제의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못 쓰는 글이지만 쓰기로 했다. 잠시 기운을 차려 탐방에 참여하는 면면을 보니 인도네시아에 발을 디딘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부터 이미 30년이 지난 사람까지 매우 다양한, 그러나 아쉽게도 부부 동반이나 엄마 따라 온 사내아이를 빼고는 대부분 여성이어서 숙소는 혼자 사용해야 했다.

다행히도 당초 출발 예정 시간보다 약간 늦게 출발한 버스는 예정대로 약 3시간 만에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항구도시 찌르본에 도착했다. 첫 탐방지인 트루스미(Trusmi) 바틱 마을에서 우리 일행은 황홀한 색깔과 디자인의 바틱세계에 마음껏 빠져들어, 나중에 버스에 다시 집결하는데 늦게 오는 회원을 찾기에 바빴다. 바틱은 사람을 매료하는 것 같다. 바틱을 보자마자 단지 저렴해 보인다는 것 외에도, 이것은 남편, 저것은 아내, 또 다른 것은 집안, 그 옆의 것은 아이들, 그리고 다른 것은 친구나 이웃들을 연이어 생각나게 한다. 바틱폴리스는 비싸기는 하지만 작품이었다. 모두들 그냥 두면 하루 종일이라도 구경할 것 같았다. 고르고 대보고 또 고르고 비쳐보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는 바틱. 시간의 축제 같았다.



점심을 서둘러 마친 후 베짜(Becak)을 타고 방문한 세 곳의 왕궁은 Keraton Kanoman, Keraton Kasepuhan, Keraton Kacirebonan이었다. 쪼르본은 족자카르타와 솔로보다 약 3세기 더 오래된 15세기에 힌두궁전이 세워진 왕궁도시이다. 족자카르타의 왕궁보다는 규모면이나 관리면에서 못하지만, 16세기에 세워진 두 개의 중요한 이슬람 왕궁, 까세푸한(Kasepuhan)과 까노만(Kanoman)은 산호로 장식된 정원과 전시물들, 그리고 아직 남은 흔적들은 옛날의 위엄과 화려했던 그들 삶의 모습을 그려보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처음 방문한 까노만 왕궁은 16세기 말, 나중에 방문한 까세푸한 왕궁은 1529년에 각각 중국 영향을 받은 자바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쪼르본 왕국은 힌두, 이슬람, 중국문화가 뒤섞이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조화를 이루어 낸 왕국으로, 현대 인도네시아의 다양성과 조화의 기초이기도 하다. 까세푸한 왕궁의 안내하시는 분은 연세가 들었는데도 열심히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시는 열정과 지식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왕궁은 까찌르보난으로 가장 최근 1808년에 식민지 시대 유럽풍으로 건축되었다. 이곳에서 왕궁의 한 후예의 특별 초대로 경내에서 신티렌(SINTREN)이란 전통공연 관람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왕과 함께해서인지 우리도 귀족이 되어 왕궁 축제에 초대받은 것 같았고,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신티렌(혹은 라이스(Lais))은 인드라마유, 쪼르본, 마자렝카 등 인도네시아 중부 및 서부 자바지역에 잘 알려진 전통 민속춤 공연으로, 술라시(Sulasih)와 라덴 술란도노(Raden Sulandono)의 사랑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 신티렌은 근딩(gending)이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많은 전통 공연이 그렇듯 마술적이고 신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더위와 장거리 이동에 피곤한 심신을 멎진 호텔 Desa Alamanis에서 달래고, 둘째 날은 꾸닝안 쪼구구르(Cigugur)마을의 세렌(Seren Taun) 축제현장으로 아침 일찍 달려갔다. 세렌축제는 벼농사 추수를 감사하는 전통적인 순다 축제로 서부자바의 여러 마을에서 아직도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침 전통공연은 이미 마치고 식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행은 식당 주변에서 옛날 우리 시골에서 추석에 많이 볼 수 있던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며 잠시 감회에 젖기도 하였다.





이삭이 잘 영근 벼단들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나무 막대기로 벼를 뺨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음식과 과일들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먹음직스럽게 널려있었다. 썩콩으로 만든 떡과 같은 음식은 우리의 인절미에 못지않았고, 약간 설익은 바나나는 양껏 먹을 수 있었다. 식후에 진행된 벼단 뺨기 작업(penumbukan padi)은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참여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흥겨우면서도 진지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기가 주식인 벼(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버스 안에서 설명 들었던 벼의 여신 테위 쓰리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도 절구를 들었다. 곳곳에서 Janur와 Nasi Tumpeng이 축제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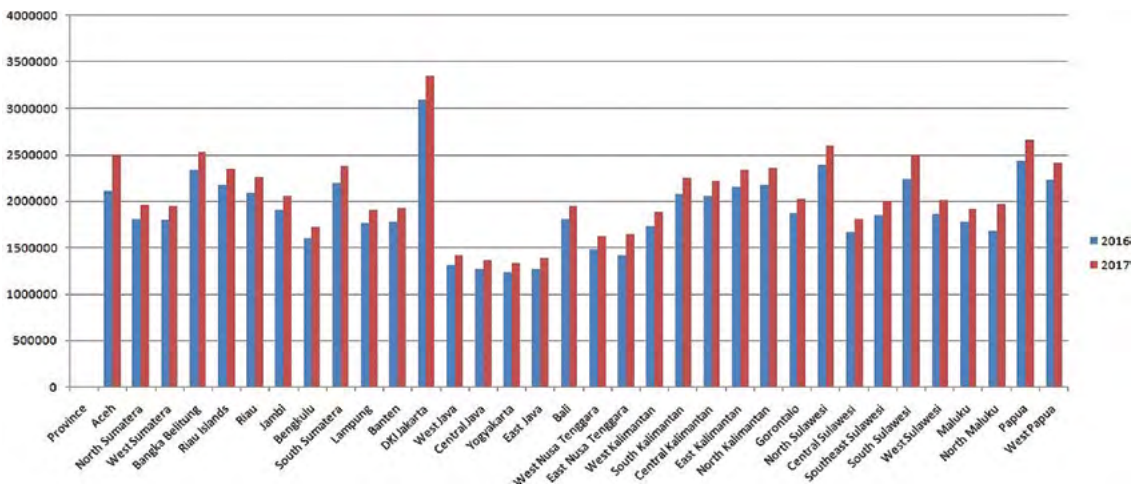
점심 후 향한 곳은 꾸닝안의 Ciremai 산 기슭에 있는 Taman Purbakala Cipari 유적지 박물관이었는데, 1970년대 초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선사시대 유물들이 뒤늦게 우연히 발견된 곳이다. 석관이 있는 곳에 몇 번이나 발걸음이 갔다. 버스에서 읽어주던 시처럼 흙빛 신부가 빛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1946년 11월 10일-13일 네덜란드 정부가 자바, 수마트라, 마두라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주권을 인정한 링가자띠(Linggarjati) 협약을 한 박물관도 탐방하였다.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독립에 대한 갈망의 시간이 그대로 숨도 쉬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독립의 열기나 흙 신부의 혼인도 모두 축제 같았다.시간에 쫓기며 곧이어 짜르본의 Sunyaragi 마을에 있는 Gua Sunyaragi로 향했는데, 이곳은 산호를 달걀로 접착하여 만든, 사원처럼 생긴 건물들이 마치 동굴 형상처럼 널려있었다. 그래서 이곳은 Taman Sari Sunyaragi 혹은 원래 운하로 둘러싸여 있었다하여 Sunyaragi Water Park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마치 어린이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다. Sunyaragi란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Sunya=Sepi(조용한, 고독한)와 Ragi=Raga(몸)의 합성어로 본래 건축 목적이 휴식과 명상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이슬람 지도자이자 왕이었던



수난 구능 자띠(Sunan Gunung Jati)의 증손자인 까라랑엔(Kararangen)왕자에 의해 1703년에 지어졌으며 주로 짜르본의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궁전 군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이곳에서 산호 성으로 떨어지는 은은한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면서 그들은 신화가 되었다. 우리들은 축제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즐기며 상상의 나라를 떠돌며 이곳저곳에서 사진 찍기에 바빴다.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행 각자의 소감들을 다 같이 나누었는데 모두들 매우 좋았다는 결론에 일치하였다. 물론 호텔이 가장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고, 까노만 왕궁의 왕의 모습에서 몰락한 왕가의 비애에 대해 우리는 아파하기도 했다. 그들은 장엄한 그 땅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모르던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여럿이 함께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배운 것 등이 좋아 다음에 꼭 다시 이러한 탐방을 함께 하자고 다짐하며 돌아왔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탐방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이곳에서 오래 생활하면서도 선뜻 개인적으로는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알찬 탐방을 기획하신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커다란 노력과 수고 때문에 우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하였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장소와 축제, 공연, 왕손과의 만남 등을 시간에 맞게 잘 탐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사전에 긴밀한 연락과 당부, 확인과 일정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신 덕분에 탐방 전 일정이 축제가 되었다고 믿는다. 돌아오는 길, 어두워진 하늘에 짜르본의 대표적인 바틱 메가면둥(구름무늬)이 자누르(Janur)처럼 높게 걸려 있었다.

| NO. | PROVINSI           | KETERANGAN   |              |                         |
|-----|--------------------|--------------|--------------|-------------------------|
|     |                    | 2016         | 2017         | Persentase Kenaikan (%) |
| 1   | NANGGROE ACEH D.   | Rp 2,118,500 | Rp 2,500,000 | 18.01%                  |
| 2   | SUMATERA UTARA     | Rp 1,811,875 | Rp 1,961,354 | 8.25%                   |
| 3   | SUMATERA BARAT     | Rp 1,800,725 | Rp 1,949,284 | 8.25%                   |
| 4   | RIAU               | Rp 2,095,000 | Rp 2,266,722 | 8.20%                   |
| 5   | KEPULAUAN RIAU     | Rp 2,178,710 | Rp 2,368,454 | 8.25%                   |
| 6   | JAMBI              | Rp 1,906,650 | Rp 2,063,000 | 8.20%                   |
| 7   | SUMATERA SELATAN   | Rp 2,206,000 | Rp 2,388,000 | 8.25%                   |
| 8   | BANGKA BELITUNG    | Rp 2,341,500 | Rp 2,534,673 | 8.25%                   |
| 9   | BENGGULU           | Rp 1,605,000 | Rp 1,730,000 | 7.79%                   |
| 10  | LAMPUNG            | Rp 1,763,000 | Rp 1,908,447 | 8.25%                   |
| 11  | JAWA BARAT         | Rp 1,312,355 | Rp 1,420,624 | 8.25%                   |
| 12  | DKI JAKARTA        | Rp 3,100,000 | Rp 3,355,750 | 8.25%                   |
| 13  | BANTEN             | Rp 1,784,000 | Rp 1,931,180 | 8.25%                   |
| 14  | JAWA TENGAH        | Rp 1,265,000 | Rp 1,367,000 | 8.06%                   |
| 15  | YOGYAKARTA         | Rp 1,237,700 | Rp 1,337,645 | 8.08%                   |
| 16  | JAWA TIMUR         | Rp 1,273,490 | Rp 1,388,000 | 8.99%                   |
| 17  | BALI               | Rp 1,807,800 | Rp 1,966,727 | 8.25%                   |
| 18  | N T B              | Rp 1,482,950 | Rp 1,631,245 | 10.00%                  |
| 19  | N T T              | Rp 1,425,000 | Rp 1,650,000 | 15.79%                  |
| 20  | KALIMANTAN BARAT   | Rp 1,739,400 | Rp 1,882,900 | 8.25%                   |
| 21  | KALIMANTAN SELATAN | Rp 2,095,050 | Rp 2,268,000 | 8.29%                   |
| 22  | KALIMANTAN TENGAH  | Rp 2,057,528 | Rp 2,222,988 | 8.04%                   |
| 23  | KALIMANTAN TIMUR   | Rp 2,161,253 | Rp 2,339,556 | 8.25%                   |
| 24  | MALUKU             | Rp 1,775,000 | Rp 1,925,000 | 8.45%                   |
| 25  | MALUKU UTARA       | Rp 1,681,268 | Rp 1,975,000 | 17.47%                  |
| 26  | GORONTALO          | Rp 1,875,000 | Rp 2,030,000 | 8.27%                   |
| 27  | SULAWESI UTARA     | Rp 2,400,000 | Rp 2,598,000 | 8.25%                   |
| 28  | SULAWESI TENGGARA  | Rp 1,850,000 | Rp 2,002,625 | 8.25%                   |
| 29  | SULAWESI TENGAH    | Rp 1,670,000 | Rp 1,807,775 | 8.25%                   |
| 30  | SULAWESI SELATAN   | Rp 2,250,000 | Rp 2,500,000 | 11.11%                  |
| 31  | SULAWESI BARAT     | Rp 1,864,000 | Rp 2,017,780 | 8.25%                   |
| 32  | PAPUA              | Rp 2,435,000 | Rp 2,663,646 | 9.39%                   |
| 33  | PAPUA BARAT        | Rp 2,237,000 | Rp 2,416,856 | 8.04%                   |
| 34  | KALIMANTAN UTARA   | Rp 2,175,340 | Rp 2,358,800 | 8.43%                   |





# 재인니 한인청년회, 제4회 골프대회 및 2016년 송년의 밤

11월 5일 보고르 리버사이드 골프장에서 재인니한인청년회 (회장 김종헌)와 재인니차세대 위원회 (대표 원영태)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골프대회 및 2016년 송년의 밤’ 이 개최되었다.

이 날 골프대회에는 130여명, 저녁만찬에는 150여명의 한인 청년들이 모여 명실상부 인니 최대 청년 모임으로 올 해를 함께 마무리하며 내년도 2017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을 다짐했다.

한인청년회 김종헌 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전했고 옥타 차세대 원영태 대표는 “앞으로 더욱 더 자주 한인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행사에는 대사관 박상민 공사, 양영연 한인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김우재 명예회장, 월드옥타 인니지회 배웅식 회장 등 많은 원로들이 참석해 청년들과 골프를 즐기며 아낌없는 조언을 전하며 이 날 행사를 더욱 뜻 깊게 만들어주었다.

한인청년회는 만 4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옥타 차세대의 경우는 매년 6-8월경 있는 월드옥타 차세대 무역스쿨을 수료한 자만 가입할 수 있다.

문의: oktajakarta@gmail.com / kiyajakarta@gmail.com  
(제공: 허영빈)





출국 직전에 공항과 향반의 문화재감정관실을 찾아 반출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전예약감정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출국 3일 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출국 당일 현장에서 감정을 받게 되면 15~20분이 소요되지만 사전예약감정을 활용하면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사전예약감정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비문화재 해외반출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







# 반둥, 두손밤부 캠핑 DUSUN BAMBU LEMBANG

이번 12월호는 교육의 도시이자 여행도시로 유명한 반둥(Bandung)에 위치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주말마다 50프로 이상이 타지역에서 오는 여행자와 차량으로 붐비며 반둥은 맛의 고장, 아름다운 자연, 교육 및 아이들을 위한 오락 장소(놀이공원과 같은) 그리고 쇼핑까지 가능하여 매력 있는 여행지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반둥하면, 램방(Lembang)과 구농 땅꾸반 뿌라후(Gunung Tangkuban Perahu) 두 곳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유명한 여행장소로서 그 유명세(?)와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두 곳 중 램방(Lembang) 지역에 위치한 DUSUN BAMBU LEMBANG을 소개하려고 한다.

## # DUSUN BAMBU LEMBANG

마을이라는 뜻의 Dusun과 대나무의 Bambu 의 뜻이 합성되어 대나무의 마을로 해석되는 이곳은 서부 자바의 에코 파크 또는 여행지를 지향한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과 여흥을 돋구는 오락

시설 등이 부대시설로 있는데 한마디로 휴양과 즐거움을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종합 테마 휴양지이다.

DUSUN BAMBU LEMBANG 내부에는 밤에 가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 ‘Cafe Burangrang’, 미니 시장 ‘Pasar Khatulistiwa’ 이 있다. 또한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색에 맞게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을 위하여 ‘Tegal Pangulinan’ 이라는 놀이터와 ‘Rabbit Wonderland’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과녁 맞추기, 양궁, 에어소프트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오락시설이 있다. ‘Eagle Camp’ 는 야외 캠핑 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글램핑’ 이라고 보면 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초록이 주변에 에둘러져 있는 텐트, 야외캠핑에 빠질 수 없는 바비큐 파티를 위한 취사시설이 있으며, 깨끗한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다. 다만 하룻밤에 대략 140만 루피아 정도로 착한 가격은 아니라는 것이 아쉽다. 숙박시설은 Eagle Camp 이외에 ‘Villa Dusun Bambu Kampung Layung’ 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글: 이승진 (한인회 간사)



Cafe Burangrang

위치 및 주소 : Jl. Kertawangi  
Komplek Komando Cisarua Barat  
입장료 : Rp.15.000/orang (3살 이하는 무료입장)  
문의전화: 022) 8278-2020, 022)8278-2021

참고: <http://www.jalanjajanhemat.com/2014/05/dusun-bambu-bandung/>

## 2016년 개인희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 기준: 가나다

| 연번 | 성명  | 금액(IDR) |
|----|-----|---------|
| 1  | 강덕재 | 300,000 |
| 2  | 강진수 | 300,000 |
| 3  | 강호성 | 300,000 |
| 4  | 강희중 | 300,000 |
| 5  | 고영철 | 300,000 |
| 6  | 길병완 | 300,000 |
| 7  | 김남수 | 300,000 |
| 8  | 김대근 | 300,000 |
| 9  | 김문환 | 300,000 |
| 10 | 김민규 | 300,000 |
| 11 | 김성철 | 300,000 |
| 12 | 김영만 | 300,000 |
| 13 | 김영수 | 300,000 |
| 14 | 김영을 | 300,000 |
| 15 | 김영주 | 300,000 |
| 16 | 김영화 | 300,000 |
| 17 | 김영희 | 300,000 |
| 18 | 김용재 | 300,000 |
| 19 | 김우경 | 300,000 |
| 20 | 김우재 | 300,000 |
| 21 | 김재민 | 300,000 |
| 22 | 김종성 | 300,000 |
| 23 | 김종웅 | 300,000 |
| 24 | 김종주 | 300,000 |
| 25 | 김종현 | 300,000 |
| 26 | 김종희 | 300,000 |
| 27 | 김주철 | 300,000 |
| 28 | 김준규 | 300,000 |
| 29 | 김창근 | 300,000 |
| 30 | 김태화 | 300,000 |
| 31 | 김필수 | 300,000 |
| 32 | 김현동 | 300,000 |
| 33 | 김형석 | 300,000 |
| 34 | 김호권 | 300,000 |
| 35 | 김희익 | 300,000 |
| 36 | 남승우 | 300,000 |
| 37 | 문상은 | 300,000 |
| 38 | 박의태 | 300,000 |
| 39 | 박재한 | 300,000 |
| 40 | 박정호 | 300,000 |
| 41 | 박중근 | 300,000 |
| 42 | 박형동 | 300,000 |
| 43 | 박화선 | 300,000 |
| 44 | 방진학 | 300,000 |
| 45 | 배연자 | 300,000 |
| 46 | 배영태 | 300,000 |
| 47 | 배응식 | 300,000 |
| 48 | 배정옥 | 300,000 |
| 49 | 배희운 | 300,000 |
| 50 | 변영극 | 300,000 |
| 51 | 사공경 | 300,000 |
| 52 | 서미숙 | 300,000 |
| 53 | 서행원 | 300,000 |

|     |     |         |
|-----|-----|---------|
| 54  | 성기채 | 300,000 |
| 55  | 손상진 | 300,000 |
| 56  | 손순락 | 300,000 |
| 57  | 손한평 | 300,000 |
| 58  | 송광종 | 300,000 |
| 59  | 송옥근 | 300,000 |
| 60  | 송옥조 | 300,000 |
| 61  | 송재구 | 300,000 |
| 62  | 송재선 | 300,000 |
| 63  | 신규태 | 300,000 |
| 64  | 신기엽 | 300,000 |
| 65  | 신돈철 | 300,000 |
| 66  | 안윤근 | 300,000 |
| 67  | 안재하 | 300,000 |
| 68  | 안치우 | 300,000 |
| 69  | 양승식 | 300,000 |
| 70  | 양영연 | 300,000 |
| 71  | 양원석 | 300,000 |
| 72  | 엄정호 | 300,000 |
| 73  | 오동훈 | 300,000 |
| 74  | 오세명 | 300,000 |
| 75  | 오세윤 | 300,000 |
| 76  | 위진복 | 300,000 |
| 77  | 유창열 | 300,000 |
| 78  | 윤석환 | 300,000 |
| 79  | 윤승욱 | 300,000 |
| 80  | 윤예슬 | 300,000 |
| 81  | 윤종찬 | 300,000 |
| 82  | 이광재 | 300,000 |
| 83  | 이기열 | 300,000 |
| 84  | 이기철 | 300,000 |
| 85  | 이상복 | 300,000 |
| 86  | 이상일 | 300,000 |
| 87  | 이상조 | 300,000 |
| 88  | 이수진 | 300,000 |
| 89  | 이순형 | 300,000 |
| 90  | 이원만 | 300,000 |
| 91  | 이일하 | 300,000 |
| 92  | 이장호 | 300,000 |
| 93  | 이정준 | 300,000 |
| 94  | 이정화 | 300,000 |
| 95  | 이종순 | 300,000 |
| 96  | 이주용 | 300,000 |
| 97  | 이주한 | 300,000 |
| 98  | 이지현 | 300,000 |
| 99  | 이철훈 | 300,000 |
| 100 | 이춘순 | 300,000 |
| 101 | 이태복 | 300,000 |
| 102 | 이호덕 | 300,000 |
| 103 | 이호완 | 300,000 |



|     |     |         |
|-----|-----|---------|
| 104 | 이화수 | 300,000 |
| 105 | 임성용 | 300,000 |
| 106 | 임성필 | 300,000 |
| 107 | 임진섭 | 300,000 |
| 108 | 장근원 | 300,000 |
| 109 | 장동철 | 300,000 |
| 110 | 장방식 | 300,000 |
| 111 | 장인식 | 300,000 |
| 112 | 장호열 | 300,000 |
| 113 | 전영돈 | 300,000 |
| 114 | 정무웅 | 300,000 |
| 115 | 제경중 | 300,000 |
| 116 | 제성호 | 300,000 |
| 117 | 제환영 | 300,000 |
| 118 | 조용재 | 300,000 |
| 119 | 조용준 | 300,000 |
| 120 | 조현보 | 300,000 |
| 121 | 채영애 | 300,000 |

|      |     |              |
|------|-----|--------------|
| 122  | 채인숙 | 300,000      |
| 123  | 최광수 | 300,000      |
| 124  | 최덕열 | 300,000      |
| 125  | 최석일 | 300,000      |
| 126  | 최인실 | 300,000      |
| 127  | 최정순 | 300,000      |
| 128  | 최철우 | 300,000      |
| 129  | 한기환 | 300,000      |
| 130  | 허민정 | 300,000      |
| 131  | 현병선 | 300,000      |
| 132  | 홍광호 | 300,000      |
| 133  | 홍석영 | 300,000      |
| 134  | 홍중서 | 300,000      |
| 135  | 홍춘식 | 300,000      |
| 136  | 황윤홍 | 300,000      |
| 137  | 황의상 | 300,000      |
| 138  | 황재규 | 300,000      |
| 총 금액 |     | Rp41,400,000 |

## 2016년 법인외비 납부 명단

※ 기준: 납부일

| 번호   | 회사명                            | 대표명            | 금액(IDR)       |
|------|--------------------------------|----------------|---------------|
| 1    | PT. BANK NEGARA INDONESIA(BNI) | ACHMAD BAIQUNI | 130,500,000   |
| 2    | PT. SUNGWON INDOJAYA           | 이종후            | 100,000,000   |
| 3    |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 윤조현            | 86,800,000    |
| 총 금액 |                                |                | Rp317,300,000 |

##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찬조 후원금 납부 명단

기준: 후원금액 순

| 번호   | 직위      | 성명  | 금액(IDR)       |
|------|---------|-----|---------------|
| 1    | 한인회 부회장 | 김준규 | 100,000,000   |
| 2    | 한인회 부회장 | 김희년 | 100,000,000   |
| 3    | 한인회 부회장 | 신규태 | 50,000,000    |
| 4    | 한인회 이사  | 길병완 | 30,000,000    |
| 5    | 한인회 이사  | 김영을 | 20,000,000    |
| 6    | 한인회 이사  | 윤조현 | 10,000,000    |
| 7    | 한인회 이사  | 이옥찬 | 5,000,000     |
| 총 금액 |         |     | Rp315,000,000 |

# 2016년 안인의 임원 잔조금 납부 명단

※ 현재 11월24일까지

| 연번 | 구분/직위 | 성명    | 금액(USD)    | 금액(IDR)     |
|----|-------|-------|------------|-------------|
| 1  | 회장    | 양영연   |            | 269,420,000 |
| 2  | 명예고문  | 김우재   | 5,000      |             |
| 3  |       | 신기엽   |            | 67,000,000  |
| 4  | 고문    | 조규철   |            | 67,000,000  |
| 5  |       | 배도운   |            | 67,000,000  |
| 6  |       | 배정옥   |            | 65,000,000  |
| 7  |       | 송창근   | 5,000      |             |
| 8  | 수석부회장 | 김주철   |            | 135,000,000 |
| 9  |       | 강희중   | 10,000     |             |
| 10 |       | 박재한   | 10,000     |             |
| 11 |       | 박미례   | 10,000     |             |
| 12 | 부회장   | 강호성   | 5,000      |             |
| 13 |       | 김동수   |            | 67,000,000  |
| 14 |       | 김우진   | 5,000      |             |
| 15 |       | 김준규   |            | 67,000,000  |
| 16 |       | 김희년   | 5,000      |             |
| 17 |       | 김문창   |            | 67,000,000  |
| 18 |       | 박현수   |            | 33,500,000  |
| 19 |       | 배응식   | 5,000      |             |
| 20 |       | 서태수   | 5,000      |             |
| 21 |       | 손한평   |            | 67,000,000  |
| 22 |       | 신규태   | 5,000      |             |
| 23 |       | 안윤근   |            | 67,000,000  |
| 24 |       | 엄정호   |            | 67,000,000  |
| 25 |       | 이승원   |            | 67,000,000  |
| 26 |       | 이종현   |            | 65,000,000  |
| 27 |       | 이지현   | 5,000      |             |
| 28 | 이호덕   |       | 67,000,000 |             |
| 29 | 이화수   |       | 67,000,000 |             |
| 30 | 장근원   |       | 67,000,000 |             |
| 31 | 조현보   |       | 67,000,000 |             |
| 32 | 최광수   | 5,000 |            |             |
| 33 | 최덕열   |       | 67,000,000 |             |
| 34 | 홍춘식   |       | 67,000,000 |             |
| 35 | 황의상   |       | 70,000,000 |             |
| 36 | 자문위원장 | 구종울   |            | 13,200,000  |
| 37 |       | 자문위원  | 강덕재        | 1,000       |
| 38 | 자문위원  | 김문환   |            | 13,200,000  |
| 39 |       | 김병철   |            | 13,200,000  |
| 40 |       | 김석래   | 990        |             |
| 41 |       | 김영만   |            | 13,200,000  |
| 42 |       | 김영욱   |            | 13,200,000  |
| 43 |       | 김영주   | 1,000      |             |
| 44 |       | 박현식   | 1,000      |             |
| 45 |       | 석웅치   |            | 13,200,000  |
| 46 |       | 송재선   |            | 13,200,000  |
| 47 |       | 이승민   | 1,000      |             |
| 48 |       | 이현상   |            | 13,210,000  |
| 49 |       | 전만식   |            | 13,200,000  |
| 50 |       | 정무웅   | 1,000      |             |
| 61 | 이사    | 김두련   | 1,000      |             |
| 62 |       | 김문수   |            | 13,200,000  |
| 63 |       | 김민규   | 1,000      |             |
| 64 |       | 김서겸   | 1,000      |             |
| 65 |       | 김선영   | 1,000      |             |
| 66 |       | 김성국   |            | 13,200,000  |
| 67 |       | 김승정   | 1,000      |             |
| 68 |       | 김영울   | 1,000      |             |
| 69 |       | 김육찬   |            | 13,200,000  |
| 70 |       | 김종현   | 1,000      |             |
| 71 |       | 김태화   | 1,000      |             |
| 72 |       | 김현미   | 1,000      |             |
| 73 |       | 김호권   |            | 13,200,000  |
| 74 |       | 김희익   |            | 13,200,000  |



|     |     |          |             |                 |
|-----|-----|----------|-------------|-----------------|
| 75  |     | 노 예 범    |             | 13,200,000      |
| 76  |     | 박 기 현    |             | 13,200,000      |
| 77  |     | 방 진 학    |             | 13,200,000      |
| 78  |     | 배 재 호    |             | 13,200,000      |
| 79  |     | 서 영 룰    |             | 13,200,000      |
| 80  |     | 성 예 식    | 1,000       |                 |
| 81  |     | 손 용      |             | 13,200,000      |
| 82  |     | 송 광 종    |             | 13,100,000      |
| 83  |     | 송 판 원    |             | 13,200,000      |
| 84  |     | 승 범 수    | 1,000       |                 |
| 85  |     | 신 만 기    | 1,000       |                 |
| 86  |     | 안 광 진    | 1,000       |                 |
| 87  |     | 안 미 경    | 1,000       |                 |
| 88  |     | 안 상 영    | 1,000       |                 |
| 89  |     | 안 선 근    | 1,000       |                 |
| 90  |     | 안 창 섭    | 1,000       |                 |
| 91  |     | 양 시 완    |             | 13,200,000      |
| 92  |     | 양 태 화    |             | 13,200,000      |
| 93  |     | 엄 상 배    |             | 13,200,000      |
| 94  |     | 오 세 명    |             | 13,200,000      |
| 95  |     | 오 영 란    | 1,000       |                 |
| 96  |     | 유 주 완    |             | 13,200,000      |
| 97  |     | 윤 석 환    |             | 13,200,000      |
| 98  |     | 윤 조 현    |             | 13,200,000      |
| 99  |     | 윤 주 경    | 1,000       |                 |
| 100 |     | 윤 태 현    | 1,000       |                 |
| 101 | 이 사 | 이 강 현    | 1,000       |                 |
| 102 |     | 이 상 득    | 1,000       |                 |
| 103 |     | 이 상 일    |             | 13,200,000      |
| 104 |     | 이 세 호    | 1,000       |                 |
| 105 |     | 이 옥 찬    |             | 13,200,000      |
| 106 |     | 이 완 주    | 1,000       |                 |
| 107 |     | 이 윤 상    |             | 13,200,000      |
| 108 |     | 이 정 휴    |             | 13,200,000      |
| 109 |     | 이 주 한    |             | 13,200,000      |
| 110 |     | 이 준 하    |             | 13,200,000      |
| 111 |     | 이 철 훈    |             | 13,200,000      |
| 112 |     | 이 태 복    |             | 13,200,000      |
| 113 |     | 이 한 주    | 1,200       |                 |
| 114 |     | 임 성 용    |             | 13,200,000      |
| 115 |     | 임 성 필    | 1,000       |                 |
| 116 |     | 임 진 섭    | 1,000       |                 |
| 117 |     | 정 선      | 1,000       |                 |
| 118 |     | 정 용 완    |             | 13,200,000      |
| 119 |     | 정 철 주    |             | 13,200,000      |
| 120 |     | 정 현 옥    | 1,000       |                 |
| 121 |     | 조 호 신    |             | 13,200,000      |
| 122 |     | 최 원 혁    | 1,000       |                 |
| 123 |     | 최 태 진    |             | 13,200,000      |
| 124 |     | 표 기 훈    | 1,000       |                 |
| 125 |     | 홍 기 호    |             | 13,200,000      |
| 126 |     | 홍 종 서    | 1,000       |                 |
|     |     | 달러 총 금액  | US\$121,190 |                 |
|     |     | 루피아 총 금액 |             | Rp2,369,930,000 |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               |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BANK KEB HANA INDONESIA     |                                 |
|---------------|--------------------------------|-----------------------------|---------------------------------|
| 계좌번호<br>(루피아) | Rp. A/C NO:<br>100-913-000-538 | Rp. A/C NO:<br>220-200-5949 | Rp. A/C NO:<br>001-001-100-2049 |
| 예금주           | ASOSIASI KOREA                 | YAYASAN ASOSIASI KOREA      |                                 |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 •주요기관

|                             |           |      |
|-----------------------------|-----------|------|
| 한국대사관                       | 2967      | 2555 |
| 영사과                         | 2967      | 2580 |
|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 2967      | 2570 |
|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 574       |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           |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 6525 |
| 한국산업인력공단                    | 527       | 2612 |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2903      | 5650 |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 5785-3030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5292      | 1302 |

### •한인단체

|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 2515     |
|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 0812         | 1960 308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 110 234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511708882 |          |
| 한인니문화연구원           | 0816         | 1909 976 |

### •한인잡지

|      |      |      |
|------|------|------|
| 한인뉴스 | 521  | 2515 |
| 교민세계 | 739  | 9025 |
| 여명   | 9955 | 5859 |

### •교육기관

|                 |      |         |
|-----------------|------|---------|
| 한국국제학교 (JKS)    | 844  | 4958-61 |
| 간디국제학교          | 690  | 9902    |
|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 7884 | 1226    |
| 싱가폴국제학교 (SIS)   | 7591 | 4414    |
| (끌라빠가딩)         | 460  | 8888    |
| 영국국제학교 (BIS)    | 745  | 1670    |
|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 750  | 3640    |
| 북국제학교 (NJIS)    | 453  | 1001    |
| 호주국제학교 (AIS)    | 782  | 1141    |
| 일본학교 (JJS)      | 745  | 4130    |
| 네덜란드국제학교(NIS)   | 782  | 3929    |

|                       |             |         |
|-----------------------|-------------|---------|
| 독일국제학교(DIS)           | 537         | 8080    |
| TAIPEI 국제학교(JITS)     | 452         | 3273    |
| SPH (땅그랑)             | 546         | 0234    |
| (찌까랑)                 | 897         | 2786    |
| RICS                  | 7590        | 3342    |
|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 08129712306 |         |
| LYCEE Int. FRANCAIS   | 750         | 3062    |
| JIPS                  | 3004        | 2885    |
| JIMS                  | 744         | 4860    |
| PAKISTANEMBASSYSCHOOL | 3904137     |         |
| ACG 국제학교              | 780         | 5636    |
| ICSCE                 | 780         | 7313    |
|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 7590        | 8820/50 |

### •유치원

|               |      |      |
|---------------|------|------|
| KIDS Island   | 765  | 6588 |
| Bambino (위자야) | 720  | 3556 |
| (빠뜨라 꾸닝안)     | 8378 | 3783 |
| 사랑            | 835  | 1540 |
| 성모            | 7884 | 2467 |
| 하나            | 844  | 5283 |
| 리틀램스쿨(자카르타)   | 750  | 0739 |
| (끌라빠가딩)       | 471  | 8047 |
| (땅그랑)         | 558  | 7227 |

### •골프장

|                   |      |          |
|-------------------|------|----------|
| BOGOR RAYA        | 0251 | 827 1888 |
| CENKARENG         | 5591 | 1111     |
| CILANGKAP         | 8459 | 5687     |
| CIKAMPEK          | 0264 | 317 007  |
| DAMAI INDAH [BSD] | 537  | 0290     |
| EMERALDA          | 875  | 9019     |
| GADING RAYA       | 546  | 7668     |
| GUNUNG GEULIS     | 0251 | 825 7500 |
| HALIM 1           | 800  | 5762     |
| HALIM 2           | 809  | 0729     |
| IMPERIAL          | 546  | 0120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               |
|-----------------|---------------|
| JABABEKA        | 893 6148      |
| JAGORAWI        | 875 3810      |
| KAPUK           | 588 2388      |
| KARAWANG        | 0267)405 888  |
| KEDATON         | 5930 0000     |
| KEMAYORAN       | 654 1156      |
| KRAKATAU        | 0254)372 030  |
| LIDO            | 0251)822 1008 |
| MATOA           | 787 0864      |
| MODERN          | 552 9228      |
| PALM HILL       | 8795 4307     |
| PANGKALAN JATI  | 751 3326      |
| PERMATA SENTUL  | 8795 1787     |
| PONDOK CABE     | 740 5385      |
| PONDOK INDAH    | 769 4906      |
| RAINBOW HILL    | 0251)827 2111 |
| RANCAMAYA       | 0251)824 2282 |
| RAWAMANGUN      | 475 4732      |
| ROVER SIDE      | 867 1533      |
| ROYAL JAKARTA   | 8088 4488     |
| SAWANGAN BARU   | 740 2194      |
| SEDANA          | 0267)644 730  |
| SENTUL HIGHLAND | 8796 0266     |
| TAKARA          | 599 1227      |

●골프교습

|               |              |
|---------------|--------------|
| Easy Golf     | 801 2048     |
|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 392 17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8166    |
| 심스골프          | 570 3063     |
| 배준원골프교실       | 781 7679     |
| PGA골프레슨(까라와찌) | 5577 8936    |
|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 0811 143 437 |

●골프샵

|                     |             |
|---------------------|-------------|
| 교민프로골프샵             | 5577 1006   |
| 따만사리골프샵             | 546 0838    |
| 레네세계골프              | 739 8312    |
| 한양(골라빠가딩)           | 450 4364    |
| EFC Golf            | 725 0057    |
| 혼마플레이골프             | 344 2540    |
| MFS골프               | 725 0057    |
| Play Golf           | 722 9587    |
| 월드                  | 552 7434    |
| Bridgestone Golf    | 7279 8123   |
| Love Green Halim    | 8778 2771~2 |
| Love Green Cikarang | 8990 7881   |

동문회

●중/고교

|              |                |
|--------------|----------------|
| 강경상고(민병무)    | 0818 879 149   |
| 경기고(구본찬)     | 780 0204       |
| 경남공고(이봉규)    | 0812 902 3800  |
| 경남중고(정낙현)    | 0813 8293 8557 |
| 경동고(강성원)     | 0812 8830 8566 |
| 경북고(노경인)     | 0815 1901 0575 |
| 경북고(이병수)     | 0816 181 3615  |
| 경성고(박영권)     | 0813 8805 1296 |
| 경신고(김진태)     | 7883 6372      |
| 경주중고(김홍규)    | 0818 141 635   |
|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 0815 1428 9329 |
| 계성고(최상록)     | 0811 249 038   |
| 광주고(선홍규)     | 0813 1536 5223 |
| 광주 사레시오중고    | 548 5112       |
|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 527 0150       |
| 광주 금호고       | 0815 1903 5802 |
| 남성중고(임석균)    | 515 9277       |
| 대구고(김현철)     | 0818 718 535   |
| 대구대륜고(노태진)   | 0816 835 185   |
| 대구 상고(김진우)   | 825 0581       |
| 대구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대광중고(이민규)    | 0816 880 018   |
| 대원외고(권기훈)    | 0877 7779 4668 |
| 대전고(윤내선)     | 426 2954       |
| 덕수상고(정천수)    | 0816 114 7364  |
| 동대문상고(곽기석)   | 867 3837       |
| 동래고(박형남)     | 0815 1906 0877 |
| 동성고(홍창형)     | 0812 102 2670  |
| 동아고(여병철)     | 0811 187 554   |
| 동인고(차명훈)     | 0815 950 0461  |
| 마상고(김만수)     | 0811 122 5239  |
| 목포중고(김용진)    | 568 0517       |
| 배재학당(이성수)    | 0815 1428 0295 |
| 배정고(김상훈)     | 0817 659 9473  |
| 보성고(김유호)     | 5940 1282      |

한인뉴스는 생활정보란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자 합니다. 전화번호 게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및 업체는 11월, 12월 두 달간 한인뉴스로 연락을 주  
 시기 바랍니다. (Telp. 021-521-2515)



|               |                |
|---------------|----------------|
| 보성교우회(박지배)    | 0811 976 537   |
| 부산기고(채윤규)     | 026 751 2483   |
| 부산 동고(이동훈)    | 0811 190 7967  |
| 부산상고(박갑수)     | 0812 952 5404  |
| 부산 중앙고(송명석)   | 0811 834 412   |
| 부산고(조명국)      | 0811 1046255   |
| 부산 외고(선진세)    | 0813 8536 8434 |
| 서울고(신균)       | 0811 157 450   |
| 서울대신고(서영석)    | 0813 1139 7145 |
| 선린상고(김기석)     | 0817 648 9321  |
| 성남고(성기채)      | 0815 1070 2424 |
| 성동고(구본욱)      | 025 161 1466   |
| 성원고(강변창)      | 0811 891 458   |
| 수원 유신고(안성욱)   | 0813 1626 7777 |
| 순천중고(김정욱)     | 0815 1932 9650 |
| 송문고(김영언)      | 0816 937 269   |
| 신일고(금민철)      | 0816 864 677   |
| 심인고(김종필)      | 0815 1305 4150 |
| 안양공고(조한영)     | 0812 859 8483  |
| 양정고(이종환)      | 0815 1033 1001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등포고(정하승)     | 0811 140 334   |
| 오산고(조동혁)      | 0815 7432 7769 |
| 용산고(박승래)      | 0813 1842 1269 |
| 유한공고(이선용)     | 0812 071 210   |
|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 0818 912 698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전주고(남택열)      | 0811 877 108   |
| 정석항공고(백승엽)    | 0811 903 144   |
| 중동고(최무중)      | 0811 8532 0354 |
| 중앙고(정재익)      | 0811 910 013   |
| 진주 대아고(김영진)   | 5522 0041      |
| 청주고(조영선)      | 0815 1901 4477 |
| 충남고(이수현)      | 0811 175 126   |
| 한성고(박창화)      | 0816 780 751   |
| 해광고(서동희)      | 0813 9839 9286 |
| 휘문고(맹중호)      | 0818 973 986   |
| ● 대학교         |                |
| 강원대(송영석)      | 0812 1326 5977 |
| 건국대(조선용)      | 0811 910 6707  |
| 경기대(인기상)      | 739 7625       |
| 경북대(김규식)      | 0816 182 3748  |
| 경희대(양승민)      | 0811 164 367   |
| 계명대(백성영)      | 871 2371       |
| 고려대(이광수)      | 0813 8026 1353 |
|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 0817 918 7100  |
| 부경대(이제원)      | 0812 968 9797  |
| 동국대(염정윤)      | 0817 681 8599  |
| 동아대(서준근)      | 0811 850 212   |
| 목포해양대(이종재)    | 0811 975 205   |

|                   |                |
|-------------------|----------------|
| 부산대(유제상)          | 0811 841 510   |
| 부산외대(이동훈)         | 0816 781 564   |
| 서강대(이철우)          | 0812 1177 399  |
| 서울대(정무웅)          | 797 5959       |
| 성균관대(김진태)         | 0818 953 949   |
| 숙명여대(서영자)         | 0815 1324 2799 |
| 숭실대(김학수)          | 0811 879 701   |
| 아주대(서보상)          | 0815 1902 4220 |
| 연세대(금민철)          | 0816 864 677   |
| 영남대(김상수)          | 0812 103 8707  |
| 영산대(최재혁)          | 590 0401       |
| 울산대(최재호)          | 723 0917       |
| 이화여대(김미승)         | 0811 122 0566  |
| 인하대(이기홍)          | 0816 812 507   |
| 전남대(최병욱)          | 0816 188 1233  |
| 전북대(최성호)          | 0815 7232 3689 |
| 중앙대(손동근)          | 0811 844 247   |
| 충남대(노제익)          | 452 6968       |
| 충북대(최병인)          | 0817 778 857   |
| 한국외대(신성철)         | 0818 936 943   |
| 한국해양대(이승준)        | 0811 190 7718  |
| 한양대(임영석)          | 0811 944 338   |
|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 0818 890 571   |

● 은행

|             |           |
|-------------|-----------|
| 수출입은행       | 525 7261  |
| KEB 하나은행 본점 | 522 0223  |
|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 2995 1915 |
| 신한은행        | 2975 1500 |

● 종교 단체

<기독교>

|               |           |
|---------------|-----------|
| 꿈이있는교회        | 548 3044  |
| 늘푸른교회         | 766 9191  |
| 동부교회          | 4587 7317 |
| 연합교회          | 7279 5625 |
| 예사랑침례교회       | 4176 5140 |
| 소망교회          | 739 6487  |
| 순복음교회         | 739 2373  |
| 안디옥교회         | 751 5525  |
| 열린교회          | 844 5537  |
| 위자야한인교회       | 7279 3145 |
| 자카르타사랑의교회     | 450 7324  |
| 주님의교회         | 831 3843  |
| 중앙감리교회        | 533 2749  |
| 찌카랑임마누엘교회     | 8990 3133 |
| 참빛교회          | 718 3535  |
| 한마음교회         | 739 5035  |
| 한인성요셉성당       | 7884 3782 |
| (찌카랑 공소)      | 8911 7547 |
|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 724 7261  |
|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 765 6036  |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www.doowang.net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기쁨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꿀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꿀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                        |                |
|------------------------|----------------|
| 사공경 회장                 | 0816 1909 976  |
| 강희중 고문                 | 0816 798 221   |
|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 0811 9103 108  |
|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 0878 5480 4815 |
|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 0811 149 586   |
|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 0816 1300 210  |
|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 0816 745 384   |
|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0812 1316 2064 |
| <협력단체장>                |                |
| 서예협회장 : 양승식            | 0811 111 363   |
|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 0811 834 026   |
|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 0878 5480 4815 |

|                    |                |
|--------------------|----------------|
|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 0812 8178 050  |
| 한바패 회장 : 박형동       | 0811 149 586   |
|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 0811 9005 639  |
|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 0811 876 547   |
|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 0816 1300 210  |
|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 0811 902 003   |
| 월화차 회장 : 이춘순       | 0878 8333 3359 |
|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 0811 9103 108  |
|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 0815 9101 898  |
|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 0816 745 384   |
|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 0812 1316 2064 |
| <촉탁전문위원>           |                |
|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 0816 883 223   |
| * 최석일 : 문화컨텐츠      | 0818 901 609   |

|            |           |
|------------|-----------|
| 한일마트       | 723 2086  |
| 한일마트(땅그랑)  | 5577 8633 |
| G-마트(찌부부르) | 8459 9858 |
| K-마트       | 2277 5526 |
| 위자야마트      | 726 9049  |

•식당

|            |                |
|------------|----------------|
| 하나         | 0254-393 2146  |
| 가나레스토랑     | 0811 918 132   |
| 가야성        | 725 7373       |
| 가호(SCBD 점) | 5289 7044      |
| 강남         | 0812 2323 5119 |
| 강남스타일      | 2952 8443      |
| 고주몽        | 7279 6709      |
|            | 8984 1000      |
| 김균 고기고기    | 726 4999       |
| 김삿갓        | 722 2230       |
| 대가         | 8459 2871      |
| 대감집        | 720 7530       |
| 대화         | 720 6091       |
| 락          | 5793 9211      |
| 마포         | 7279 2479      |
| 맛집칼국수      | 0821 1096 3483 |
| 명가면옥       | 0254-849 3571  |
| 면의전설       | 521 0230       |
| 명가면옥       | 2751 0800      |
| 미가         | 0818 85 8026   |
| 미스터 박      | 5140 1142      |
| 버까시 서울     | 8895 7604      |
| 베다니1호점     | 9318 0458      |
| 베이징        | 0254-837 0242  |
| 보신명가       | 789 0220       |
|            | 0254-848 4111  |
| 본가         | 739 6229       |
| 삼원가든       | 2988 9505      |
| 설악추어탕      | 722 1852       |
| 소래포구       | 8990 5051      |

|         |                |
|---------|----------------|
| 씨티서울    | 5289 7506      |
| 아랑22    | 5140 1245      |
| 아리정     | 739 6549       |
| 우장군     | 725 6181       |
| 유미      | 720 7464       |
| 청기와     | 726 1924       |
| 청담가든    | 0815 7342 5802 |
| 청해수산    | 527 8721       |
| 토박      | 725 1135       |
| 하누      | 725 5042       |
| 한강가든    | 0813 1988 5751 |
| 한솔      | 5290 3417      |
| 한양가든    | 2751 7370      |
| 이가네     | 6669 5500      |
| 한옥      | 0254-385 588   |
| 강산      | 2452 0569      |
| 깜닭      | 4584 5837      |
| 다미      | 4585 0040      |
| 대장금     | 0816 885 956   |
| 마포갈매기   | 0812 9313 9503 |
| 명가면옥    | 8990 4552      |
| 미스터 사시미 | 4585 3484      |
| 미추홀     | 6583 1472      |
| 산정(찌까랑) | 2909 3454      |
| (땅그랑)   | 547 3172       |
| 서울      | 4585 4454      |
| 설악추어탕   | 2937 5435      |
| 송가네삼계탕  | 4585 4422      |
| 야래향     | 4584 8476      |
| 황금밥상    | 4585 3402      |
| 감미옥     | 5579 4612      |
| 강나루     | 5576 8222      |
| 강촌      | 5579 3681      |
| 꼬꼬파리아   | 0254-39 4255   |
| 대가야     | 547 5511       |
| 명가면옥    | 552 2745       |
| 산들      | 5579 5821      |

|        |                |
|--------|----------------|
| 상하이    | 5573 5550      |
| 서울일식   | 546 0840       |
| 아리수    | 0254-781 0059  |
| 알리사    | 0254-60 1430   |
| 오리랑장어랑 | 5577 6457      |
| 우리들    | 552 4047       |
| 조선민물장어 | 5573 3308      |
| 종가레스토랑 | 551 3273       |
| 청기와    | 0858 1377 3388 |
| 체어맨    | 5577 8585      |
| 태능갈비   | 7055 0888      |
| 테라스 가든 | 8493 9321      |
| 한마당    | 5577 6770      |

•신문

|            |           |
|------------|-----------|
|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 520 7207  |
| 데일리코리아     | 725 7447  |
| 조선일보       | 5290 7388 |
| 중앙일보       | 7590 8308 |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ACCREDITED ACSIS, edexcel Approved Centre, INTERNATIONAL CURRICULUM ASSOCIATION

[www.ichthusschool.com](http://www.ichthusschoo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
|--------------|-----------|
| 한국일보         | 769 1081  |
| 한인포스트        | 4586 9199 |
| 일요신문         | 452 5655  |
| 타임인도네시아      | 5028 4996 |
| JAKARTA POST | 530 0476  |
| 자카르타경제신문     | 5290 0117 |

## •안경원

|        |          |
|--------|----------|
| 눈사랑안경원 | 723 5360 |
| 스티안경원  | 726 5009 |

## •여행사

|                 |                |
|-----------------|----------------|
| 나래여행            | 5296 0749      |
| 하나족자트라블         | 0274 887 488   |
| 굿데이투어           | 4586 0598      |
| 그린관광            | 798 3322       |
| Red Cap         | 5797 3397      |
| Rodem Tour      | 4587 8833      |
| 마타아리 여행사        | 521 2212       |
| 부미관광            | 7279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9274 1780  |
| 솔로몬투어           | 0813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2903 6647~50   |
| 스카이투어           | 391 1381       |
| 우리투어            | 0811 980 5009  |
| 153 TOUR        | 5720 153       |
| 코리아트래블          | 230 3116       |
| 코인관광            | 720 7230       |
| 하나관광            | 520 2450       |
| 호산여행사           | 691 3602       |
| HAPPY TOUR      | 532 7970       |
| Inko Batam(바탐)  | 0778 462 500   |
| 사랑투어            | 2912 5099      |

## •인니어통역/번역

|          |              |
|----------|--------------|
| Mrs. Lee | 021 743 2687 |
|----------|--------------|

|       |          |
|-------|----------|
| CITRA | 781 7771 |
|-------|----------|

## •인터넷

|                   |           |
|-------------------|-----------|
| HANASTAR INTERNET | 2270 8282 |
| S-Net             | 7080 7886 |

## •인테리어

|            |                |
|------------|----------------|
| H2 Stuff   |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 0821 2564 1777 |
|            | 7590 6767      |
| Living A&I | 7278 0704      |
| 로만인테리어     | 720 4851       |
| 아이니인테리어    | 0812 1928 5578 |
| INNOMATE   | 7919 2006      |
| 올댓티크 원목가구  | 0858 8831 1218 |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소명통관              | 4585 9283 |
| 센다이 이주화물          | 8770 6361 |
| 아네카 트랜스           | 520 4181  |
| 트랜스 우따마           | 829 6218  |
|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 5591 5770 |
|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 2902 3838 |
| CARGO PLAZA       | 831 7779  |
| DHL               | 7919 6677 |
| FIRSTINDO EXPRESS | 5296 0024 |
| PANTOS LOGISTICS  | 8998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8488 |
| HANINDO EXPRESS   | 252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3455 |
| QCN               | 7884 1550 |
| Wings Global      | 4585 8053 |
| ZIMMOAH           | 2937 5670 |
| WIKASA            | 8379 1935 |

## •자동차 정비소

|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4034 |
|------------|----------|

## •증권/보험

|          |               |
|----------|---------------|
| 삼성화재     | 021 806 22000 |
| 우리코린도증권  | 797 6210      |
| 클레몽종합금융  | 797 6363      |
| 메리츠코린도보험 | 797 6242      |
| 키움증권     | 526 1326      |
| KDB 대우증권 | 515 1140      |
| KB손해보험   | 3199 0247     |
| 한화생명     | 727 88150     |

## •건설팅

|               |                |
|---------------|----------------|
| 럭키비자          | 0813 1133 2122 |
| 글로벌건설팅        | 7280 0524      |
| 누비라건설팅(리뽀찌까랑) | 8990 0088      |
| 두왕건설팅         | 520 7153       |

|                |                |
|----------------|----------------|
| 새천년컨설팅         | 5290 0040      |
| 우리컨설팅          | 7918 4239      |
| 컨설팅 21         | 799 6182       |
| 퓨릭컨설팅          | 5596 3213      |
| 한생컨설팅          | 5290 0670      |
| KMAQA (ISO인증원) | 573 1576       |
| 비엔시 컨설팅        | 2278 0470/4013 |

## •인재채용

|                 |          |
|-----------------|----------|
| JAC Recruitment | 315 9504 |
|-----------------|----------|

## •컴퓨터, IT

|                     |               |
|---------------------|---------------|
| 대인정보시스템             | 230 5533      |
| 레드망고(PC방)           | 4584 4186     |
| 리콤컴퓨터               | 725 1606      |
| 컴퓨터 원               | 5576 5228     |
| 지텍컴퓨터               | 5696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0950     |
| 한비텔                 | 8379 1144     |
| 인도웹 www.indoweb.org | 0811 888 9609 |

## •택시

|             |          |
|-------------|----------|
| SILVER BIRD | 798 1234 |
| BLUE BIRD   | 794 1234 |

## •하숙

|              |                |
|--------------|----------------|
| 경북궁하숙(리뽀찌까랑) | 081314157581   |
| 가딩 홈스테이      | 9661 5877      |
|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 085814422900   |
|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 085813413222   |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081315149978   |
| 교민 하숙        | 0816 163 5558  |
| 나인비즈니스 하숙    | 9940 5005      |
| 동지 하숙        | 3608 9316      |
| 리뽀찌까랑 하숙     | 0812 1066 7757 |
| 레저 게스트하우스    | 0811 143 437   |
| 모나리자         | 8990 9570      |
| 모이하숙         | 0878 8515 1653 |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 0813 8059 1625 |
| 세명 하숙        | 0852 1757 5525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 0821 1336 1111 |
| 소망 하숙        | 0813 1724 9911 |
| 쉼터 하숙        | 726 8775       |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 081517803680   |
| 이모네 하숙       | 0818 964 946   |
| 인다 게스트하우스    | 0822 6074 8228 |
| 엘지 게스트하우스    | 0812 100 7135  |
| 엘림 게스트하우스    | 0815 181 3122  |
| 위자야게스트하우스    | 081510248888   |
|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 0817 127 887   |
|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 0811 888 9609  |
| 한밭           | 830 9990       |
| 한울타리         | 739 5841       |



|            |                |
|------------|----------------|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 723 8302       |
| 현대 하숙      | 0818 795 787   |
|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 0813 8822 7783 |
| BSD등불 하숙   | 0852 1985 1523 |
| 힐링 게스트하우스  | 0821 1427 5415 |

● 학원/교육업

|                  |                |
|------------------|----------------|
| 대교인도네시아          | 5292 0911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 546 4531       |
| 뮤직아카데미           | 08119103108    |
| 박학천논술            | 4586 7844      |
| 뿐독인다아카데미         | 7590 5773      |
| 에쎄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짜) | 546 4531       |
| 예원               | 720 8783       |
|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 2942 7062      |
| 종로학원             | 7883 5202      |
| 토마토미술            | 723 3699       |
|                  | 0817 9876 950  |
|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 0813 989 22222 |
| 하이스트학원           | 720 2022       |
| 해동검도             | 522 7204       |
| 해보다외국어학원         | 0888 843 0415  |

● 항공

|                      |               |
|----------------------|---------------|
| 대한항공 (시내)            | 521 2180      |
| (공항)                 | 550 23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아시아나 항공 (시내)         | 572 1381~3    |
| (공항지점)               | 5591 3229     |
| 싱가폴 항공               | 570 4411      |

● 호텔

|                    |                |
|--------------------|----------------|
| 그랜드멜리아             | 526 8080       |
| 만다린                | 314 1407       |
| 물리아                | 574 7777       |
| 샹그릴라               | 570 7440       |
| 싸이드자야              | 570 4444       |
| 하야트                | 390 1234       |
| 크라운플라자             | 526 8833       |
| 솔탄                 | 573 8011       |
| GSI Hotel & Resort | 0858 8248 3211 |
| 자바 팔레스             | 2928 1111      |

● 환전

|          |                |
|----------|----------------|
| 굿-머니     | 5793 9990      |
| 그린환전소    | 0815 1423 0114 |
| 플라빠가징    | 453 1166       |
| 사강머니체인저  | 5290 0233      |
| 위나머니체인저  | 7278 0929      |
| 뚜나스신암    | 797 6105       |
| 참피온머니체인저 | 458 51158      |
| 환전       | 712 8556       |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                |        |
|------|----------------|--------|
| 최 병우 | 0811-956-227   | 회장     |
| 강 희중 | 0816-798-221   | 검도협회장  |
| 곽 봉규 | 0815-410-4167  | 탁구협회장  |
| 김 송정 | 0816-716-293   | 볼링협회장  |
| 김 태화 | 0811-188-2938  | 스쿼시협회장 |
| 방 진학 | 0811-198-282   | 태권도협회장 |
| 배 응식 | 0811-965-2775  | 용무도협회장 |
| 이 광희 | 0811-998-186   | 축구협회장  |
| 정 성원 | 0817-785-348   | 테니스협회장 |
| 한 현봉 | 0811-111-5800  | 골프협회장  |
| 이 기홍 | 0819-812-507   | 사무총장   |
| 성기채  | 0815-1070-2424 | 사무차장   |

**발 리 (지역번호 0361)**

|                      |        |          |
|----------------------|--------|----------|
| <b>•항공</b>           |        |          |
| 대한항공(KAL)            |        | 768 377  |
| <b>•종교단체</b>         |        |          |
| 한인교회                 |        | 462 222  |
| <b>•슈퍼마켓</b>         |        |          |
| 한국슈퍼마켓               |        | 281 929  |
| <b>•여행사</b>          |        |          |
| B.J.C TOUR           |        | 284 365  |
| BALI INDA TOUR       |        | 286 905  |
| BALI DAMAI TOUR      |        | 764 864  |
| BALI HARMONY TOUR(A) |        | 744 1815 |
| BALI STAR TOUR       |        | 868 8287 |
| BALI TAP TOUR        |        | 860 4977 |
| MANGOCAKE            |        | 745 4229 |
| FIN DONGHWA TOUR     |        | 847 1966 |
| DREMLAND TOUR        |        | 745 1961 |
| DARMA BALI TOUR      |        | 848 0030 |
| KOURUS TOUR          |        | 744 7200 |
| M. TOUR MAIL         |        | 725 800  |
| NUSA TOUR            |        | 285 122  |
| ITOUR                |        | 261 105  |
| MATAHARI KOREAN TOUR |        | 703 479  |
| MARIN TOUR           |        | 224 010  |
| PDTOUR               |        | 763 845  |
| PENJOR TOUR          |        | 727 800  |
| P.B.B TOUR           |        | 288 999  |
| U2 Bali Holiday TOUR |        | 710 731  |
| T.N.B TOUR           |        | 808 9000 |
| UNION TOUR           |        | 745 4419 |
| SUDINA TOUR          |        | 744 2121 |
| SPIRIT TOUR          |        | 780 2340 |
| KOREA TRAVER         |        | 756 899  |
| V.I.P. 여행사           |        | 762 090  |
| WORLD RESORT CENTER  |        | 778 218  |
| WEDDING TOUR         |        | 745 3650 |
| <b>•식당</b>           |        |          |
| 그릴하우스                | (0361) | 710 374  |
| 꼬끼레스토랑               |        | 770 256  |
| 대장금(SIMPANG SIUR)    |        | 889 0870 |
| 대장금(SANUR)           |        | 918 1888 |
| 라리스                  |        | 727 405  |
| 부가                   |        | 805 1212 |
| 서울가든(부두굴)            | (0362) | 342 9220 |
| 한일관                  |        | 727 250  |
| 인터넷셔널라운지             |        |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                       |          |
|-----------------------|----------|
| BEVERLY HILLS VILLA   | 848 1800 |
| BALI DIARY HOTEL      | 499 282  |
| DREAM LAND VILLA      | 708 199  |
| OCEAN BLUE BALI VILLA | 776 700  |
| MAN&WOMAN VILLA       | 847 6521 |
| LAVENDER HOTEL        | 752 961  |
| VILLA DOWNTOWN        | 736 464  |
| VILLA NAMASTE         | 755 755  |
| AISIS VILLA           |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                          |               |
|--------------------------|---------------|
| I.N.L                    | 720 999       |
| INKO CLUB                | 722 431       |
| HALLO BALI               | 723 593       |
| SIMPANG SIUR             | 761 313       |
| AVENUE                   | 762 327       |
| AISIS (NUSADUA)          | 770 256       |
| AISIS (SANUR)            | 287 257       |
| COLAGEN BUTY SHOP        | 885 1770      |
| CLUBBER                  | 766 340       |
| BALI FINE                | 852 8881      |
| POLO SHOP(AIRPORT)       | 759 368       |
| BALI TEGEHE AGUNG        | 298 643       |
| CLEAN & GREEN            | 289 070       |
| SUN JEWELLERY            | 761 537       |
| SINAR MUTIARA BALI       | 462 061       |
| BALI DEWATA              | 285 501       |
| CHIPPENDALE FURNITURE    | 812 570       |
| SAMMA                    | 815 310       |
| BALI PROPERTY CONSULTING | 264 086       |
| SHINY HAIRSHOP           | 766 304       |
| 카리스(특피전문백)               | 0811 998 1637 |

**반둥 (지역번호 022)**

|           |                |
|-----------|----------------|
| 반둥 아름다운교회 | 201 3184       |
|           | 0813 2233 0119 |
| 반둥 반석교회   | 201 5022       |
| 한국인교회     | 201 4052       |

**•식당**

|        |            |
|--------|------------|
| 뉴캐슬식당  | 201 5007~8 |
| 명가레스토랑 | 200 7363   |
| 코리아하우스 | 203 1626   |
| 한국관    | 204 3069   |

**•서비스업**

|         |                |
|---------|----------------|
| 뉴캐슬사우나  | 201 5007~8     |
| 반둥렌트카   | 0858-1111-4000 |
| 반둥한인부동산 | 0858-1111-4000 |
| 반둥컴닥터   | 0821-2222-6000 |





# 긴급전화번호

|               |                                   |  |
|---------------|-----------------------------------|--|
| 경찰            | POLICE (Polisi)                   | 112  |
| 범죄 및 도난 신고    |                                   | 110  |
| 소방서<br>(화재신고) | FIRE BRIGADE<br>(Dinas kebakaran) | 113  |
| 응급차           | AMBULANCE<br>(Ambulan)            | 118<br>119                                     |
| 민간구급차<br>서비스  | PRIVATE<br>AMBULANCE<br>SERVICES  | (021)7506001<br>=International SOS<br>(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                            |         |
|----------------------------|---------|
| 시내.....                    | 108     |
| Directory Service(City)    |         |
| 시 외.....                   | 105,100 |
| Directory Service(Suburbs) |         |
| 국제전화.....                  | 001,008 |

## ■교통기관

|                     |                   |
|---------------------|-------------------|
|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 021)5505307/8/9   |
| Airport Information | 550 5179          |
|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 021)7917 1234     |
| (24시간 접수)           |                   |
| 고속도로 정보.....        | 801               |
| Toll Road           |                   |
| 교통사고.....           | 118, 021)527 5090 |
| Traffic Accidents   |                   |
| 열차시간안내.....         | 121               |
| Station Gambir      |                   |
| Station Kota.....   | 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                          |                      |
|--------------------------|----------------------|
| 한국대사관.....               | 021)2967 2555        |
| 영사과.....                 | 021)2967 2580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21)521 2515         |
| <b>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b> | <b>0812 1960 308</b> |

## ■항공사 안내

|                       |                |
|-----------------------|----------------|
| 대한항공(시내).....         | 021)521 2180   |
| (공항).....             | 021)550 2389   |
| 가루다(Call Center)..... | 021)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아시아 항공(시내).....       | 021)5721 381~3 |
| (공항).....             | 021)5591 3229  |

## ■우편

|                 |              |
|-----------------|--------------|
|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              |              |
|--------------|--------------|
| 전기고장 문의..... | 123          |
| 전화고장 문의..... | 147          |
| 수도고장 문의..... | 021)579865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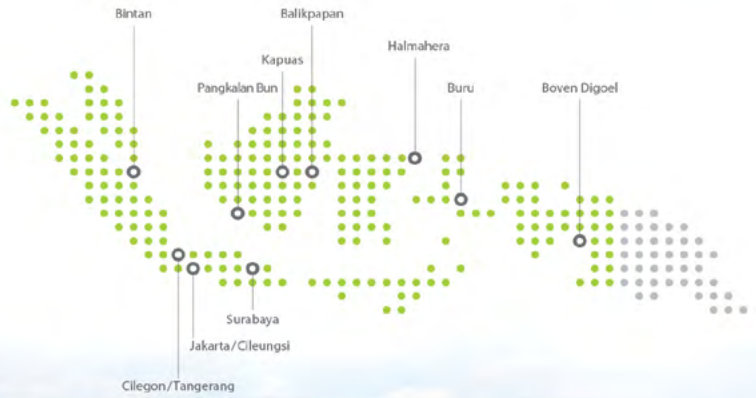
# 지역한인회 주소록

2016년 10월 현재

| 번호 | 지역            | 직위    | 성명    | 휴대폰            |
|----|---------------|-------|-------|----------------|
| 1  | 발리            | 회장    | 안 복 희 | 0813-3808-6990 |
|    |               | 부회장   | 편 성 호 | 0812-389-0694  |
|    |               | 부회장   | 윤 경 희 | 0811-385-841   |
|    |               | 수석총무  | 최 경 희 |                |
|    |               | 총무    | 송 학 자 | 0812-362-3000  |
|    |               | 총무    | 손 민 석 | 0858-5732-0669 |
| 2  | 반둥            | 회장    | 엄 정 호 | 0812-201-8309  |
|    |               | 수석부회장 | 편 대 영 | 0813-2145-7997 |
|    |               | 사무국장  | 오 명 근 | 0812-115-1004  |
|    |               | 사무차장  | 남 상 일 | 0812-2400-0303 |
| 3  | 케프리주 바탐       | 회장    | 공 자 영 | 0811-691-826   |
|    |               | 수석부회장 | 주 정 만 | 0812-704-5030  |
|    |               | 사무국장  | 정 규 철 | 0812-701-6090  |
|    |               | 총무    | 이 상 구 | 0821-7356-8405 |
| 4  | 보고르           | 회장    | 이 철 훈 | 0811-112-179   |
|    |               | 총무    | 임 성 필 | 0819-707-107   |
| 5  | 메단            | 회장    | 홍 상 철 | 0811-160-8724  |
|    |               | 총무    | 손 근 환 | 0812-655-9418  |
| 6  | 수까부미          | 회장    | 김 흥 기 | 0811-980-337   |
|    |               | 부회장   | 최 종 섭 | 0811-114-2163  |
| 7  | 동부자바<br>수라바야  | 회장    | 배 춘 식 | 0811-332-4001  |
|    |               | 수석부회장 | 이 경 윤 | 0817-321-833   |
|    |               | 사무총장  | 김 태 현 | 0818-321-332   |
|    |               | 수석총무  | 정 상 원 | 0812-3373-8798 |
|    |               | 총무    | 박 한 진 | 0813-5274-8703 |
|    |               | 총무    | 배 기 보 | 0812-3251-5518 |
| 8  | 중부자바<br>(스마랑) | 회장    | 김 소 웅 | 0811-278-8909  |
|    |               | 사무국장  | 채 환   | 0822-2021-5725 |
|    |               | 사무총무  | 이 승 현 | 0811-978-0282  |
| 9  | 족자카르타         | 회장    | 박 병 엽 | 0821-3352-6380 |
|    |               | 총무    | 조 용 재 | 0815-4880-0256 |
| 10 | 즈파라           | 회장    | 박 상 규 | 0812-2523-7001 |
|    |               | 수석총무  | 조 영 성 | 0813-9032-3355 |
|    |               | 총무    | 양 세 환 | 0822-2719-9135 |
| 11 | 땅그랑 반뜰        | 회장    | 오 세 명 | 0816-187-8582  |
|    |               | 사무국장  | 허 미 숙 | 0818-660-732   |
| 12 | 마카사르<br>술라웨시  | 회장    | 이 재 호 | 0811-444-190   |
|    |               | 총무    | 한 정 곤 | 0811-419-200   |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 KIDECO

##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www.kideco.com](http://www.kideco.com)  
[marketing@kideco.co.id](mailto:marketing@kideco.co.id)

